

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

자료정리 및 편집 유 남 식
고 재 모

머 리 말

이 책자는 1996년 5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세 가지 주제의 발제자료와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의 생산이 감소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 곡물수급 동향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국제 곡물시장의 실상과 앞으로의 변화를 분석·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곡물수입국인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 사료곡물의 국제수급 전망 및 대책, 그리고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 등에 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학계 및 업계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론은 식량문제의 실상을 점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정당국은 물론 관련분야 연구나 관련업계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과 토론회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축협중앙회 및 한국사료협회 그리고 진행과 결과정리에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6.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머리말

주제발표 내용

□ 제 1 주제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 3

□ 제 2 주제

사료곡물의 국제수급 전망 및 대책 37

□ 제 3 주제

최근의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 57

토론내용..... 77

토론회일정 및 주제별 토론참가자 명단.....116

빈

면

주 제 발 표 내 용

빈 면

제 1 주 제

국제곡물시장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

고 재 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목 차 > —

- I. 머 리 말
- II. 주요 곡물의 수급 및 재고동향
- III. 주요 곡물의 교역 및 가격동향
- IV.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수급전망
- V. 맺 음 말

빈

면

국제곡물시장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¹⁾

I. 머리말

금년은 국제적으로 농업정책 변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WTO의 농산물무역 개혁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첫 해이고, FAO의 식량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곡물이사회(IGC)의 곡물무역협약(Grains Trade Convention)이 발효될 예정이고, 미국은 새로운 농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개혁과 변화의 분위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최근의 국제곡물시장도 변화의 조짐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20여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곡물의 가격상승과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곡물의 재고량이다. 그러면 이 같은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신호는 무엇인가? 첫째, 곡물시장의 안정, 특히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생산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곡물시장의

1) 본문에서 인용된 자료 중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두 USDA, DATA BASE, PS & D를 이용한 것임.

불안정이 일과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기화 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식량수급의 심각성이 일시적으로 제기된 적은 있지만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식량부족' 또는 '기아'의 문제는 거의 잊고 있었던 사실이다. 문제의 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하라 이남과 남아시아의 국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엽적인 문제로만 인식되었다. 이는 1961~91까지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곡물의 총생산량 증가(2.1배)가 인구증가(1.9배)를 상회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1990년 이후 세계인구는 매년 9,000만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줄곧 17억톤 내외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만약 경지면적의 확대나 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식량수급은 현재보다도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산량 증가와 관련된 현실이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지전용 등으로 1981년 이래 매년 평균 380만ha씩의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과거의 생산성 향상이 상당부분 환경파괴를 전제로 가능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ha당 곡물생산량은 1990년 2,500kg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과거 30여년간 생산량 증가분 중 90%가 기술진보와 자재투입의 개선에 의한 단수의 증가 때문이었다고 할때 앞으로 획기적인 기술진보가 없다면 생산량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전체 곡물의 자급률이 이미 30% 이하로 떨어졌고, 밀과 옥수수만 하더라도 연간 천만톤 이상을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국제곡물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나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

2) USDA, DATA BASE, PS & D에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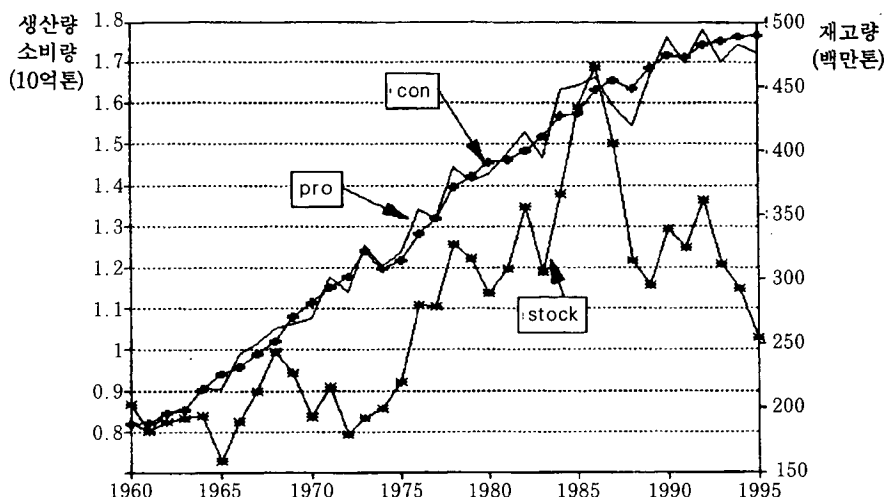
서는 우선 국제곡물시장의 현황을 살펴 보고, 다음으로 주요 곡물의 교역 및 가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곡물시장의 전망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응전략 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Ⅱ. 주요 곡물의 수급 및 재고동향

1972~74년은 국제곡물수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1972/73년에는 전체 곡물생산량이 전년대비 불과 3.1%(약 3,666만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폭등했다. 밀은 1972년의 60\$/톤에서 1974년 177\$/톤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쌀은 같은 기간 중 141\$/톤에서 593\$/톤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중국과 구소련은 흉작으로 1972/73년 기간 중 세계 곡물교역량의 1/4에 해당하는 3,700만톤을 수입하여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또한 1973년에는 석유수출기구(OPEC)가 일순간에 유가를 두배로 인상하여 에너지를 포함한 농자재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공동체(EC)는 식량재고 유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과 조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국제 곡물가격은 1973/74년 한해 동안 평균 80%(경상가격 기준) 가량 상승하였으며, 국제적인 식량위기 의식을 조장했다. 이 같은 식량위기의식에 대응하여 1974년 11월에는 세계식량회의(WFC)가 개최되었고, 농산물의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자리잡았다. 그후 주요 생산국들을 중심으로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잇따랐고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림 1〉에 의하면 과거 30여년간 곡물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이 1972~74, 1982~83, 1986~88, 1990~91년 등 다소의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소비량은 1973~74년을 제외하면 일관된 증가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결국 재고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재고비율은 소

〈그림 1〉 세계의 곡물생산, 소비 및 재고의 변화추이



비량에 대한 재고량의 비중을 표시한 것인데 1970년 초반 15%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1980년대에는 줄곧 20%를 상회하고 있다. 재고율은 1986년도에 최고 28.5%까지 증가했다가 그후 감소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1990년대 초까지도 20% 내외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2/93년을 분기점으로 서서히 하락하다가 1994/95년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여 주는데 금년에는 14%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FAO에서는 1972/73년의 식량위기를 계기로 재고안전 수준을 시사하고 있는데 대략 재고율 17~18%를 안전도의 척도로 제시하고 있으며³⁾, 이 기준에 따른다면 최근의 재고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품목별로 최근의 재고량 변화추이를 보면 쌀이 비교적 안정적인데 비해 밀과 잡곡의 변화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쌀의 세계 재고량은 1993년말 4,974만톤에서 1995년말 4,700만톤으로 감소하여 3년동안

3)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식량재고 안전수준 지표는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난다. 최근의 예를 들면 식량안전보장 지표로서 곡물소비량에 대한 곡물 재고량의 비율로 1994년 18%, 1995년 17%를 제시하고 있다. FAO, CFS, 95/2, 1995.

274만톤(5.5%)이 줄어 들었다. 같은 기간 중 밀과 잡곡의 재고량은 각각 2,799만톤(20%)과 2,587만톤(21.4%)이 감소했다. 밀과 잡곡의 재고량 감소가 전체 곡물재고량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쌀의 경우 중국, 인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변화가 적고, 또 대외교역보다는 자국소비에 할애되면서 재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밀과 잡곡은 주요 생산국의 작황 변동에 따른 재고감소가 컸기 때문이다.

곡물의 재고율과 공급의 불안정이 단기적으로는 주요 생산국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최근의 불안정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미국 북부평원에서 파종기의 강우과다로 밀의 파종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다. 미국을 제외하면 생산과 소비의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작황과 정책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는 이미 1970년대의 식량위기 때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구소련은 작황부진에 따른 사료곡물의 부족에 직면하여 국내 가축의 대량 도살정책을 수립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의 부족분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여 국제시장에서의 수입수요 증대를 가져와 재고량의 급감과 세계 식량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와서는 국내경제의 혼란과 외환사정의 악화로 1,000만톤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하고 있으나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4,0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이였다. 만약 농업부문의 생산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순간적인 대량수입 결정은 우선 재고량의 감소로 직결될 것이다.

1995년도 중국의 곡물생산량은 4.2억톤으로 전세계 생산량 17.2억톤의 24.4%에 해당한다. CIS를 포함한 유럽 전체의 생산량 3.9억톤보다 많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을 합한 3.3억톤 보다도 1억톤 가까이 많다⁴⁾. 다만 중국의 경우 곡물의 대외교역량이 총생산량의 5%

4) FAO(GIEWS), Food Outlook, No. 3/4, 1996, p. 2.

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고, 자급자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의 비중 만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나 재고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즉, 다소의 감산이 있더라도 감산된 양이 곧바로 국제시장에서의 수요 증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소비감소와 대체재로 일차적인 해결을 모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일부가 국제시장에서의 수입수요 증대로 나타날 따름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으나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소득증대와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억의 인구(전세계 인구의 약 22%),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형태의 변화(1979~94년까지 연평균 GNP 증가율 9.8%), 연간 400kg에도 못 미치는 1인당 평균 식량소비량, 1억명 내외의 절대 빈곤인구의 존재, 곡물시장의 개방(1993년), 1994년

〈표 1〉 곡물재고량 추이⁵⁾

(단위: 백만톤)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추정)	1996(예측)
총 계	307.5	350.8	336.4	379.6	338.0	313.7	265.2
주요수출국	122.4	146.6	132.5	168.5	118.2	110.0	78.8
기타	185.1	204.2	203.6	211.1	219.9	203.7	186.3
선진국	167.0	193.8	174.7	213.5	169.2	153.8	108.6
미국	61.1	72.2	47.7	78.8	43.7	60.2	24.4
C I S	39.1	45.6	35.0	45.1	43.4	27.8	18.7
EC	30.5	34.8	46.0	45.2	35.8	24.9	27.8
개도국	140.5	154.0	161.7	166.2	168.8	159.9	156.5
- 중국	42.0	57.0	62.0	57.0	54.0	49.0	50.0

주: 1) 재고량은 각국의 곡물연도말 이월재고량의 합계에 근거한 수치임.

2) 밀과 잡곡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및 EC회원국이고, 쌀 수출국은 미국, 태국, 중국, 파키스탄 및 베트남임.

3) EC에는 15개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FAO(GIEWS), Food Outlook, No. 3/4, 1996.

5)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 이용한 미국 농무성의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의 흉작에 따른 주요 곡물의 수출제한조치 등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는 중국의 자그마한 변화가 국제곡물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FAO는 최근의 보고서⁶⁾에서 1995/96년의 세계 곡물공급이 전년도 대비 2.9% 감소하고, 소비량은 2.1% 감소하여 수급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품목별 생산량은 쌀과 밀이 3%내외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잡곡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량도 생산량 추세를 반영하여 쌀과 밀이 약간씩 증가하는데 비해 잡곡은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족량은 재고분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1995/96년도 재고량이 다시 5,000만톤 정도 감축되어야 하며 재고비율도 14%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97년의 수급상황은 1996년의 작황수준에 좌우될 것이지만 금년도 상반기 상황에 의하면 낙관적으로 예측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

생산이 불확실할 때 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재고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재고량 수준을 보면 선진국 그룹에서는 일본과 호주를 제외하면 1993년과 비교된 1996년의 재고량이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2~3배의 감소가 예상된다(미국: 78.8백만톤 → 24.4백만톤, CIS: 45.1백만톤 → 18.7백만톤, EC: 45.2백만톤 → 27.8백만톤). 반면 개도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10% 내외의 미세한 감소가 예측되고 있을 뿐이며, 남미에서는 재고량 증가가 예상된다.

재고량의 추가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4% 이상의 곡물 생산량 증가가 있어야 하고, 이미 감축된 재고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량의 증가가 요구된다. 최근의 곡가파동에 대응하여 각국은 곡물의 파종면적을 확대할 것이다. 쌀과 밀은 파종면적의 확대정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잡곡의 생산량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6) FAO(GIEWS), Food Outlook, No. 3/4, 1996.

보인다. 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량이 현재의 긴박한 수급상황을 완화시킬 만큼 충분히 클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불확실하다⁷⁾.

Ⅲ. 주요 곡물의 교역 및 가격동향

1. 교역동향

지난 수십년 동안의 국제 곡물교역량을 보면 대략 총생산량의 10~15% 수준이고, 최근 수년동안의 곡물 교역량은 2.3억톤 내외로 총생산량 17억톤의 14% 정도다. 교역량 자체는 1960년대의 1억톤 내외에서 최근의 2억톤 이상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생산량 대비 교역량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밀로서 약 총생산량의 20% 정도이다. 이에 비해 쌀은 총생산량의 5% 미만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될 따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밀이 전체 곡물 교역량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잡곡이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쌀은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잠정추계)의 밀 수출은 미국 36%, 캐나다 21%, EU 20%, 호주 7%, 아르헨티나 6% 등으로 전체 교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곡물의 순수입국이었으나 EU공동농업정책이 추진되면서 역내 생산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순수출국으로 변모했다. EU의 식량정책은 생산과잉시 감산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과잉생산된 곡물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주어 해외시장에 판매한다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수출보조금에 의한 밀 수출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가장 주요한 수출국가이던 미국은 EU시장

7) FAO(GIEWS). Food Outlook. 1/2. 1996.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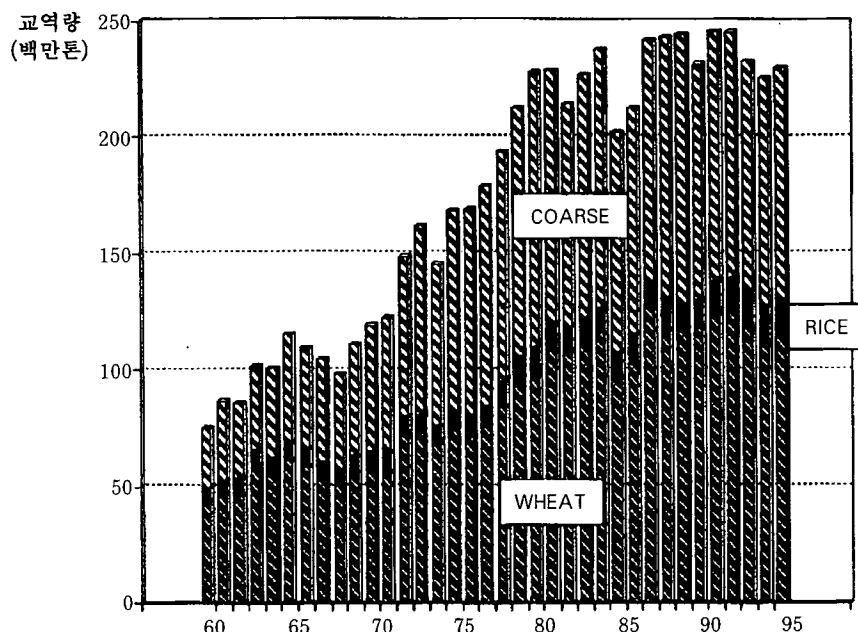
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EU와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⁸⁾. 주요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지만 이들 국가의 수입량 합계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밀의 수출시장이 수개국 중심으로 과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입시장은 세계 각국에 의해 분산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 교역시장에서는 소수의 수출공급측 보다는 수입수요측 요인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이는 미국, EU 등 선진 수출국들이 자국농업의 보호정책을 채택하면서 생산과잉을 초래했고, 그 결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판매선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수입수요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의 작황여하에 따라 불규칙한 구매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수출국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 요인이다. WTO체제 성립에 따라 자유무역이 보다 강화되고, 그 일환으로 EU는 1995년부터 수출보조금제도를 정지했다. 일시적인 수급조정을 위해서 수출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 소맥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⁹⁾. 그러나 EU의 휴경지 면적이 많지 않고, 생산증대의 유인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서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점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재고감소와 가격상승이 수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쌀의 수출은 태국과 미국이 전세계 수출물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¹⁰⁾, 중국은 당해연도의 작황, 국내 소비동향 및 수출정책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이 있어 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연간 100만톤 내외의 순수출이 이루어졌다. 쌀의 수입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한 국가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소

8) 최세균 외(1993), p. 26

9) 竹村健太郎(1995), p. 34.

10) 1993~95년 기간 중 세계 전체 쌀 수출량은 각각 1,500만톤, 1,580만톤 및 1,500만톤이었다. 같은 기간 중 미국은 260만톤, 270만톤 및 280만톤을 수출하고, 태국은 480만톤, 470만톤 및 500만톤을 수출하였다. FAO, Food Outlook, 1995.

〈그림 2〉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교역량



량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쌀의 국제 교역과 관련하여 다소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과 미얀마가 상당량을 수출하는 순수출국으로 바뀌었다. 1995년 베트남과 미얀마는 각각 230만톤과 80만톤을 수출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1994~95년 기간 중 100만톤의 순수입을 기록했다.

잡곡 중에서는 옥수수의 비중이 가장 커서 잡곡 전체의 생산량과 교역량 중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옥수수를 제외하면 보리와 수수가 각각 20% 및 8%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잡곡의 상당부분이 사료용으로 이용되는데 1994년의 경우 옥수수는 66.5%, 보리는 20.6%, 수수는 8.3% 등이다¹¹⁾. 미국은 전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70% 이상,

11) 유철호(1995), p. 12.

옥수수를 포함한 전체 잡곡 수출량의 50%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EU12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잡곡의 수입은 아시아의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1994/95년 이들 3개국의 도입량은 3,840만톤에 이르러 동년도 전체 교역량 8,400만톤의 46%에 이른다¹²⁾. 최근들어 생산과 소비간의 격차가 가장 큰 품목이 잡곡이다. 1992년 이후만 보더라도 1992년 초과공급량 2,824만톤, 1993년 초과수요량 4,179만톤, 1994년 초과공급량 849만톤, 1995년 초과수요량 3,436만톤 등이다.

2. 가격추이

국제 곡물가격은 금년들어 계속 상승추세를 이어왔다. 금년도의 수확은 아직 몇 개월 기다려야 하는 반면 재고량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어서 당분간 시장 및 가격은 불안정 상태를 거듭할 것이다. 특히 밀의 경우 수출밀에 대한 EU의 관세부과, 미국산 경질 겨울밀의 작황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당분간은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FAO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1995/96년도 밀, 쌀 및 옥수수의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31.4%, 16.3% 및 44.5% 상승하여 톤당 U.S. \$205, U.S. \$336 및 U.S. \$14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¹³⁾.

지난 70년대 이래 밀, 쌀, 옥수수의 가격변화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밀과 옥수수보다는 쌀의 가격변화율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이 가장 작은 쌀의 가격진폭이 가장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주요 쌀 생산국이 자급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쌀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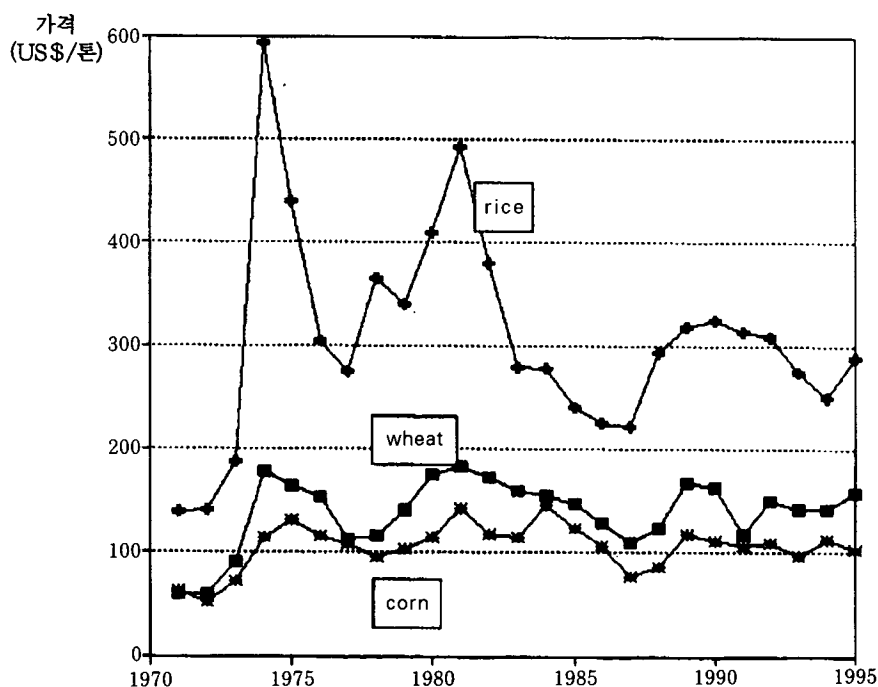
12) FAO(제385호, 1995.5), p. 59.

13) FAO(GIEWS), Food Outlook, No. 3/4, 1996, p. 2. 여기서 밀은 U.S. No.2 Hard Winter, 쌀은 Thai, 100%, 2nd grade, 옥수수는 U.S. No.2 Yellow임. 1996년 6월까지의 가격상승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위의 가격상승 예측치 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음.

이 협소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우리 나라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자포니카계 쌀은 국내생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만톤 내외가 거래되고 있어서 자그마한 수급 불안정도 대폭의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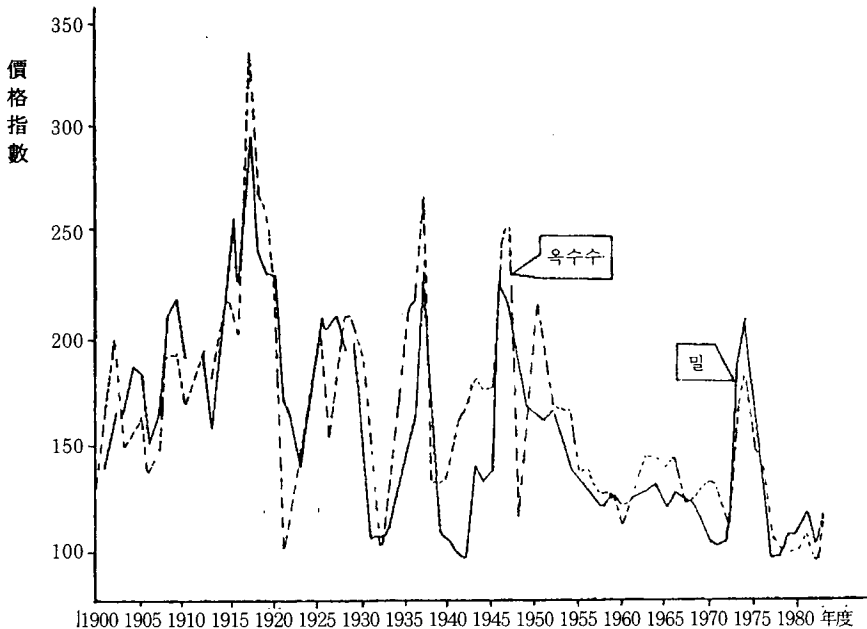
최근의 가격상승은 세계 곡물시장에서 다시 한번 곡물의 수급전망과 관련하여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래 줄곧 이어져 온 과잉공급과 재고누적에 대한 염려가 수그러 들고 1970년대 초반에 제기되었던 장기적 공급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의 곡가상승이 단기적인 수급불안정에 기인한 일과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기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단정하기에 앞서 관찰기간을 좀더 확장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수출가격 변화추이



1900년 이래 1980년까지의 장기적 가격변화를 표시한 것이 〈그림 4〉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옥수수는 연간 US\$1.01/톤씩, 밀은 연간 US\$1.52/톤씩 하락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¹⁴⁾. 다시 말하면 꾸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곡물의 공급능력이 호전되어 왔다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나 불과 수년사이에 가격이 두배 이상 폭등한 경우가 여섯번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1940년대 후반까지는 대략 10년에 한번씩 가격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그후 30여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1970년대 초에 다시 가격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4〉 국제 곡물가격 장기변동 추세(1977~79 = 100)



자료 : 이정환, 한국농업의 선택, KREI, 1988, p. 15

14) 이정환(1988), p. 15.

다소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주요 곡물의 가격이 주기성을 띠고 동시에 폭등 혹은 폭락현상을 거듭하니까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기초식량만이라도 자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곡가의 불안정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고, 또 곡가급등과 공급부족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면 민심의 이반을 제어하기도 어렵게 된다. 정부는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입량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이 국지적 현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가격은 더욱 폭등하게 될 것이다.

〈그림 3〉과 〈그림 4〉가 시사하는 것 중의 하나는 주요 곡물인 밀, 쌀, 옥수수 등의 가격이 그 진폭은 달리 할지라도 비슷한 시기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값이 비싸다고 다른 곡물로 대체하더라도 높은 비용지불이 불가피하므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공급의 부족에 더욱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든 가격파동은 불확실성을 증대시켜서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폭등 뒤에는 어김없이 폭락(비록 원래 수준으로의 회복이라 할지라도)이 이어졌다. 공급부족과 가격폭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산증가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공급과잉 혹은 재고누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국제 곡물가격 파동이 왜 이렇게 주기성을 띠고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파고 또한 높은가? 그것은 국제 곡물시장의 협소성과 과점성, 금수조치의 가능성, 주요 곡물메이저들의 시장 지배성, 수급의 비탄력성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시장의 협소성과 과점성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곡물의 교역량은 많은 경우에도 총생산량의 15%를 상회하지 않는다. 그것도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몇몇 국가에서만이 수출여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국내의 자원보호 혹은 농민들의 소득증대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생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국제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곡물의 금수조치에 대해 살펴보자. 1970년대 초 식량파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자국의 국내 사료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한 콩의 금수조치를 단행했고, 1980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은 아프리카 사태와 관련하여 대소련 곡물 금수조치를 발동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1994년 말 중국의 식량수출 제한으로 아시아 각국의 사료곡물 구입이 타격을 받았고, 베트남은 1995년 5월부터 국내의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 금수조치를 취했다. EU도 1995년 7월부터 밀과 보리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여 사실상의 수출제한을 가하고 있다. 목적이 어디에 있든 주요 생산국의 금수조치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 이때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충격은 결국 가격등귀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로 곡물메이저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시장정보망을 통하여 정부나 대중에 앞서 곡물수급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수많은 곡물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요 곡물메이저(Grain major)¹⁵⁾들은 미국과 유럽 곡물유통량의 50% 이상을 장악하면서 과점적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974년 곡물파동 때는 이들 5대 곡물메이저들이 미국의 소맥과 옥수수 교역량의 90%, 아르헨티나 소맥의 80%, 호주 곡물의 90%를 취급하였다¹⁶⁾. 신속한 시장정보와 과점적 위치는 단기의 가격왜곡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가격왜곡을 통한 초과이익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메이저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공급과잉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만약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유통과 시장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곡물메이저들의 영향력은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곡물수급의 비탄력성이야말로 곡물가격 파동의 가장 큰 요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곡물의 생산이나 소비, 농산물시장

15) 5대 주요 곡물상들을 일컫는 말이며 Cargil, Continental, Louis Dreyfus, Bunge, Andre 등이 포함되어 있음.

16) 이경원(1986), p. 82.

의 특성 등과 관련된 농산물의 비탄력적 성격에 대해서는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생산변화가 소비수요에 증폭되어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가격폭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제 세계 모든 나라를 곡물의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양분하고, 이들은 각각 100억톤의 곡물을 생산하며, 교역량은 12억톤이라 가정하자. 즉, 수출국은 100억톤을 생산하여 88억톤을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 12억톤을 수출하며, 수입국은 100억톤을 생산하지만 공급부족으로 다시 12억톤을 수입한다. 어느 해 수입국에서 흉작으로 2%의 감산이 발생하면 국제 곡물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를 살펴보자. 수입국은 국내 농산물가격을 전년도 가격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2억톤의 수입을 필요로 하므로 국제 곡물시장에서 16.7%(2억톤/12억톤)의 수요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만약 수요와 공급탄력성이 -0.2 및 0.2라고 가정하면 국제 곡물가격에 47%의 가격상승 효과를 가져온다¹⁷⁾. 즉, 총생산량의 1% 변화가 교역에 16.7%, 가격에 47%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Ⅳ.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수급전망

1.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의 변화

1) 경지면적

농산물의 생산량은 경지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지면적의 확대 또는 단위

17) $\ln D = a - 0.2 \ln P$, $\ln S = b + 0.2 \ln P$ (D, S, P는 수급 및 가격)을 가정하면, $\ln P = (a-b)/0.4$. 흉작으로 감산이 발생하면 수요함수가 $\ln 1.167$ 만큼 이동하므로 $\ln D = \ln 1.167 + a - 0.2 \ln P'$ 가 된다. 따라서 $\ln P' = (\ln 1.167 + a - b)/0.4$. $\therefore P'/P = e^{\ln 1.167/0.4} = 1.47$. 이정환(1988), p. 17.

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경지면적이 자원이용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확대될 수는 있으나 천혜의 조건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경지면적의 외연적 확대에 비하면 기술진보 등에 의한 단수의 증가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나 역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여 한계가 있다.

1960년 이래 곡물의 경작면적을 검토해 보면 1960~71년까지는 아주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72~81년 기간 중 비교적 급속한 증가를 보였고, 1981년부터 최근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그림 5>).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제기되고 있을 즈음인 1972년부터 1976년까지 4년동안 무려 5,542만ha가 증가하여 8.4%의 경작면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후 1979~1981년 사이에 다시 2,164만ha가 증가하여 1981년은 경작면적 73,231만ha로서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1981년 이후의 경작면적은 적은 비용으로 개발 가능한 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작지도 타용도로 전환되어 연평균 380만ha씩 계속 감소되어 왔다.

경작면적의 확대는 다음 두가지 상황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휴경면적을 줄이고 파종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1995년 현재 앞의 두 지역에서 휴경하고 있는 면적은 대략 2,000만ha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¹⁸⁾. 만약 곡물재고가 감소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농민의 자발적 의사 또는 정부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휴경면적은 감소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농업법(Farm Bill)'이 제정·통과되면서 휴경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18) EU의 휴경제도는 공동농업정책의 핵심요소로서 생산감축을 위해 1992년에 도입되었다. 휴경제도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휴경보상금이 농산물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민들은 휴경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휴경에 참여하였다(최정섭 외, 1995, p. 26). 1995년 EU의 휴경면적은 470만ha, 총농경지의 15%였는데 곡물재고량 감소 및 국제시장의 가격상승으로 1996년에는 12%까지 감소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체 경지면적 1.6억ha의 9.2%인 1,500만ha가 토양보전유보계획(CRP)에 따라 휴경되고 있다(中川 壇, 1995, p. 43).

앞으로의 휴경면적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¹⁹⁾.

둘째는 중국, 러시아, 남미 등지에서 새로운 농지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중국의 동북지방에 약 400만ha의 개발가능지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총 토지면적 6.2억ha 중 1.1%인 662만ha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을 따름이다²⁰⁾. 비록 북위 45° 부근에 위치하여 곡물경작에 불리한 점도 있지만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지역인 아무르주를 비롯하여 연해주지방에서는 벼농사까지 가능하다고 할때 많은 지역이 개발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남미지역은 대규모 곡물생산에 적합한 지리적, 기후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지가 조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며, 동시에 잠재 식부면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남미 전체의 곡물재배 면적은 1.9억ha이나 잠재 식부면적은 8.9억ha로서 중국을 제외한 92개 개도국 전체 잠재 식부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흑자는 향후 인류의 식량 위기를 탈출하는 비상구가 될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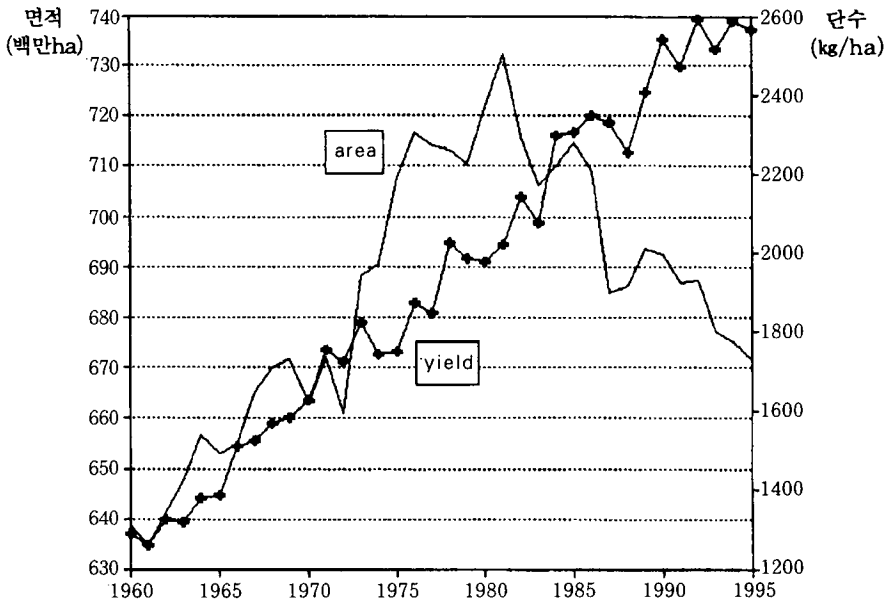
앞으로 경지면적의 확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확대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감소요인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발전에 두고 있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토지의 상당부분을 기존의 농경지에서 공급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8년부터 1994년까지 16년동안 448만ha의 경지면적이 감소했다. 1985년에는 1년 동안에 무려 100만ha 이상의 경지면적이 감소한 적도

19) USDA,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A Description of U.S. Farm Commodity Programs under the 1996 Farm Bill. 1996.4.

20) 1990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임.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1994).

21) Thomas I. Nordblom and Farouk Shomo, IFPRI(1995), p. 146. 여기서 잠재식부면적은 개발에 의해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개념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 경작면적과 단수의 추이



있다. 다시금 식량위기가 발생하고 각국이 농업생산에 정열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1970년대와 같은 경지면적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념이 퇴색하고 경제 제일주의가 만연할수록 경지면적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단수

ha당 곡물 생산량은 1960년의 1,290kg에서 1995년 2,565kg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2.06%씩 증가해 온 결과이다. 같은 기간 중 밀은 2.74%, 쌀은 2.56%, 잡곡은 1.98%씩 증가하여 밀의 단수 증가가 가장 높았다. 〈그림 5〉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단수의 증가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농업생산성의 비교우위성은 자연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 구조개선 등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산성이 얼마나 빨리 향상되는가에 따라 짧은 기간에도 크게 변동한다²²⁾. 이 같은 사실은 1950년 이후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압도하여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 및 수출국으로 부상한 배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1979~86년의 곡물생산 증가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연평균 0.55%의 파종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적 투입재의 증가, 기술진보 및 구조개선의 영향으로 생산은 연평균 2.66%씩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²³⁾.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비료, 농약 등 물적 투입재의 증가에 의한 단수의 획기적인 증가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하면 주요 곡물생산국인 선진국들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이미 비료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개도국 중 중국의 비료 투입량도 거의 300kg/ha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이미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투하되고 있고, 최근에는 환경문제와 연계되어 과다투입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기도 하다²⁴⁾.

1990년 이후 단수의 증가는 뚜렷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단수의 증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상재해이다. 최근 3년간의 중요한 자연재해만 살펴보자. 1994년 중국은 양자강 유역의 홍수와 華北평원의 가뭄으로 1,100만톤의 곡물이 감산되었다. 1995년에는

22) 이정환(1988), p. 46.

23) 朱希剛(1991), p. 105. 여기서 구조개선은 1978년 후반기부터 종래의 '人民公司' 제도가 폐지되고 농가단위의 생산책임제가 도입·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농촌 자유시장의 인정, 농산물 가격제도의 변화 등이 농업구조에 미친 영향등을 계량화한 것이다.

24) 1989~1991년간 ha당 비료 투입량은 선진국이 114kg, 개도국은 92kg이었다. 선진국은 1979~81년의 120kg/ha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개도국 중에서는 아프리카의 비료투입량이 매우 적어서 13kg/ha이고, 중국의 비료투입량은 아시아 전체의 평균 투입량 139kg/ha보다 훨씬 많다. 중국의 비료 투입량은 1969~71년 기간 중 41kg/ha에 불과했으나 10년후인 1979~81년 기간 중 149kg으로 증가했고, 1989~91년에는 다시 두배에 가까운 293kg/ha으로 증가했다. FAO, AGROSTAT/PC.

자연재해로 러시아의 밀 수확량이 12.8% 감소되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이상저온으로 10만마리의 가축이 동사했고, 런던의 8월 강수량은 예년의 2%에 불과했다. 북한도 지난해 9월의 홍수로 연간 곡물수요의 25%인 190만톤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1996년에는 미국 북부 평원의 강우과다와 중서부의 서리피해로 2,000만톤의 공급부족이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들은 일시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지구 전체에 새로운 변화로 자리잡을지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양상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다. 앞으로의 기상재해는 홍수에 의한 피해 못지 않게 가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기아가 한발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아랄해는 이미 수량의 2/3(600km³)가 줄어 들었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00년까지 1/3의 면적이 말라버릴 것이다²⁵⁾. 1955년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물 소비량이 1,000m³에 미달하여 물의 부족이 심각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이 숫자가 20개국으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35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²⁶⁾. 전세계 물 사용량(연간 약 4,130km³) 중 65%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물의 부족은 곧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도 최대의 곡창지대 중 하나인 화북평원이 만성적인 용수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中國統計年鑒」에 의하면 매년 한발에 의한 피해면적이 1,000만ha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이다²⁷⁾.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원래가 전작농업 중심이므로 가뭄의 피해가 적지만 답작 중심의 아시아에서는 관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FAO의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의 관개면적 비율은 37.5%(1990년 기준)에 불과하고, 새로운 관개 설비를 위한 실질비용은 20년전에 비해 2~4배 증가하였다.

25) FAO(제382호, 1995.2), p. 22.

26) FAO(제382호, 1995.2),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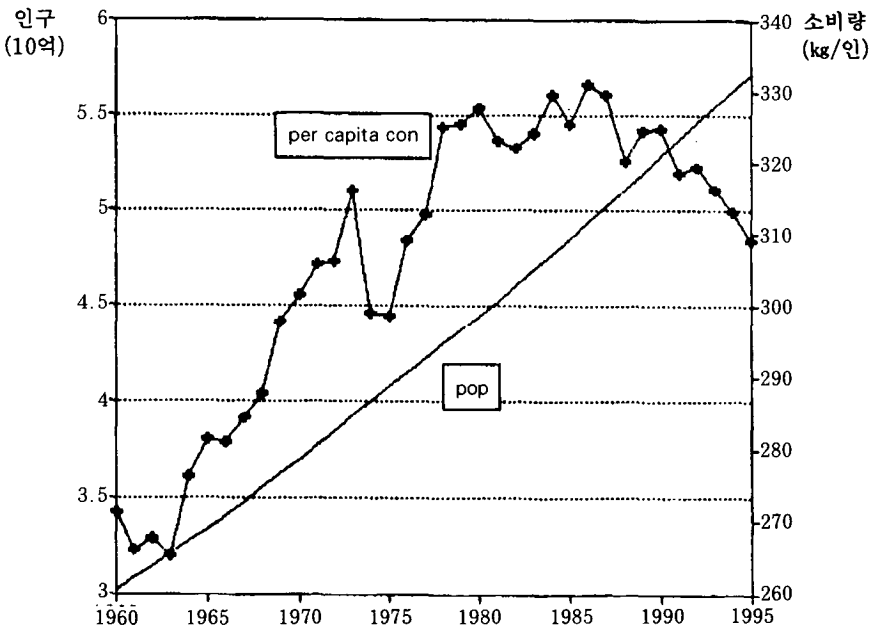
27) 전체 경지면적 중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면적은 거의 매년 20%를 상회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해에 의한 피해면적이 수해에 의한 피해면적의 2배를 능가한다(고재모 외, 1996, p. 22).

2.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의 변화

1) 인구

곡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수이다. 적정 인구는 효과적인 경제활동에 불가결의 요소로 작용하지만 과다한 인구는 모든 문제의 원천으로 지목되기까지 한다. 즉, 빈곤과 기아 뿐만 아니라 도시문제, 환경오염, 전쟁과 같은 재앙들이 수시로 '인구과잉'의 탓으로 돌려지곤 한다. 하지만 인구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식량의 소비다. 유한한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에 임하고, 그 산출물을 소비하여야만 생존이 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구의 과다 또는 과소는 자원이용 및 영양상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1960년 이후의 인구증가와 1인당 식량소비량을 비교하여

〈그림 6〉 인구증가와 1인당 식량소비량



표시한 것이 〈그림 6〉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곡물소비는 1986년까지 계속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최근 10여년간 1인당 소비량이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986~95년 기간 중 총소비량은 16.3억톤에서 17.7억톤으로 연평균 0.88% 증가한데 비해 인구는 49.3억에서 57.2억으로 연평균 1.68%씩 증가한 결과이다.

인구는 식량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므로 많은 연구기관이 추정해 왔다. 세계의 인구증가율은 1965~70년 기간 중 2.1%를 기록한 이래 최근 1.6%까지 떨어지면서 계속 하락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하락추세는 2005~10년 기간 중 약 1.3%, 2020~25년 기간 중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²⁸⁾.

UN의 추정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이 하락하더라도 절대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90년도 53억의 인구가 2000년에는 약 62억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약 85억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연간 9,000만 명 이상씩 인구증가가 계속 된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1인당 300kg의 소비량을 가정하더라도 매년 2,700여만톤의 추가공급이 필요하고, 이는 매년 1.5%(1995년 기준)의 곡물생산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서는 1990~2000년 기간 중 선진국의 곡물생산 및 소비증가율은 모두 0.8%로서 현상유지가 가능한데 비해 개도국의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은 각각 1.9%와 2.4%로서 소비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²⁹⁾.

1990년의 인구규모를 100으로 할때 2025년의 인구규모는 선진국이 116, 개발도상국이 173으로 예측되며, 실제 인구증가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증가량의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28) FAO, Food Security Assessment - FAO Technical Report No. 7, 1996.1.

29) IFPRI(1995), p. 52.

인구의 22%에 달했으나 1990년대 이후 연간 인구증가를 1.1%라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그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개도국의 인구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표 2〉 세계의 인구전망

	인구(백만명)				1990 = 100		
	1990	2000	2010	2025	2000	2010	2025
세계전체	5,295	6,228	7,150	8,472	118	135	160
선진지역	1,211	1,278	1,341	1,403	106	111	116
개발도상지역	4,084	4,950	5,809	7,069	121	142	173
- 중국	1,153	1,310	1,410	1,540	114	122	133

주 : 선진지역은 유럽(구소련지역 포함), 북미, 오세아니아 및 일본이며, 개발도상지역은 그 외 전지역임.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2.

개도국은 막대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영양부족(chronic undernutrition)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영양부족 인구는 1988~90년의 7.81억명에서 2010년에는 개도국 전체인구의 11%인 6.37억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영양부족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생산력 발전으로 같은 기간 중 영양부족 인구가 2.58억명에서 0.77억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하라 이남(sub-Saharan Africa)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중 1.75억명의 만성 영양부족 인구가 2.96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양부족 인구가 동아시아에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로 이동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³⁰⁾.

2) 소득증가와 소비형태의 변화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곡물의 직접소비가 증

30) IFPRI(1995), p. 33.

가하고, 경제발전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곡물의 직접소비 뿐만 아니라 육류를 통한 간접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소비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61년 1인 1일당 공급열량이 2,968Kcal에서 1992년에는 3,384Kcal로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FAO가 권장하는 열량공급 기준이 2,900Kcal³¹⁾임에 비추어 선진국의 수준은 이미 영양 과다섭취의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곡물의 직접소비 증가는 거의 정체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육류 소비도 미미한 수준의 증가만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개도국의 1992년 1인 1일당 공급열량은 2,542Kcal로서 선진국과는 800Kcal 이상의 차이가 있고,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1961년부터 1992년까지 30여년간 32%의 열량공급 증가가 있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열량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욕구를 가질 것이다.

〈표 3〉 곡물과 육류의 1인당 소비량

	1인당 곡물소비량(직접소비)			1인당 육류소비량		
	1970~72=100		1990~92 실제 소비량	1970~72=100		1990~92 실제 소비량
	1980~82	1990~92		1980~82	1990~92	
세계평균	108.7	114.4	170kg	110.1	122.2	31kg
선진국	98.7	100.5	122kg	111.2	119.1	85kg
개도국	109.9	115.3	181kg	127.0	165.1	19kg
- 중국	123.9	134.8	229kg	147.4	263.5	28kg

자료 : FAO, AGROSTAT/PC, 中川 壇(1995) p. 37에서 재인용.

31) WHO와 FAO는 1974년까지 열량권장량 기준을 발표했으나 국별, 인종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일률규정이 의미가 없다하여 1975년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기준은 1974년의 성인 1일 권장 섭취량 기준이다.

개도국에서는 곡물의 직접소비도 증가하겠지만 소득 증가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증가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육류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의 소비증가는 곡물수요를 가속도적으로 증가시킨다. 1kg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각 사료용 곡물 7kg과 4kg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1990~92년 기준 곡물의 직접 소비량은 선진국이 122kg, 개도국이 181kg으로 개도국이 많으나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전체의 소비량은 개도국이 230kg 내외인데 비해 선진국은 630kg으로 파악되고 있다³²⁾. 개도국이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식생활의 내용이 변화할수록 곡물의 수요도 폭증할 것이다. 물론 각국은 나름대로의 식생활 패턴이 있고, 선진국에서 이미 연간 1인당 85kg에 이르는 육류를 소비하고 있다고 해서 개도국도 이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축산물의 소비증가를 예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3. 전망

최근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농업생산성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맬더스의 예언은 저지당하고 있는 듯하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농업부문에서 미국의 역할 증대에 기인한다. 맬더스가 ‘인구론(1789)’을 발표할 당시에는 20세기 이후 농업부문에서 미국의 역할을 간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세계 곡물생산량의 15% 내외, 곡물수출량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는 맬더스에게 있어서 일종의 더미변수였을 것이다. 특히 금세기에 들어와서 교통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개념은 그 의의를 상실해 가고 있다. 미국의 잉여는 곧바로 세계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농

32) 中川 壇(1995), p. 37.

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 둘째는 대규모 농업에 필수적인 농업의 기계화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실현되었고, 육종기술의 진보에 의한 다수확 품종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종 옥수수의 보급, 196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녹색혁명 등은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셋째는 폭발적인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인구의 조절이 선진국과 몇몇 개도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수요억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요인 혹은 다른 이유로 세계의 식량사정은 계속 호전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전문가나 연구기관의 추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요인들은 단정적인 추측이 어렵고 불확실한 가정에 기초하여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곡물수급에 대한 수급전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수요의 전망에 대해서는 거의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인구증가와 소득요인 모두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분야는 공급능력에 대한 전망이다. 장래의 식량공급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감산이 발생하여 기아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세계적인 곡가상승이 일어나면 되풀이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공급능력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토양오염, 절대 경지면적의 감소, 물 공급의 한계 등이 새로이 부각되면서 또 다시 공급능력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요부문의 일치된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의 전 세계 총인구는 약 85억에 달하고, 전체인구 중 83% 내외가 개도국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³³⁾, 개도국의 소득증가로 쌀, 밀 등 고급농산물과 축산

33) 1990년의 전세계 총인구는 약 53억이고, 개도국의 전체 인구 중 비중은 77%임.

물의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해 원할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현재보다 2배 가량 증가해야 한다.

그러면 생산량이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의견의 차이점을 보이는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⁴⁾

- 1) 향후 30년 동안에 걸쳐 예상되는 생물학적 곡물 수량의 증가율
- 2) 농업생산을 위해 새로이 추가되는, 또는 상실되는 토지의 면적
- 3) 주로 관개를 통하여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
- 4) 생산능력을 저해하는 환경악화의 영향

낙관론자들은 대부분이 곡물 수출국들로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공급능력의 증가로 장기적인 식량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⁵⁾. Mitchel과 Ingco는 세계의 인구증가율이 1994년 1.74%에서 2010년 1.4%로 하락하고, 생산은 매년 2%씩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곡물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³⁶⁾. IFPRI도 2010년의 1인당 평균 곡물생산량이 1990~92년 수준인 326kg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³⁷⁾.

FAO와 곡물수입국들은 앞으로의 식량수급과 관련하여 비관론의 입장에서 있다. Brown과 Kane는 지구 전체의 이용가능한 토지자원의 한계, 열악한 환경의 누적적인 영향,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진보의 정체 등을 지적하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달성된 식량생산의 기록적인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들은 1984년 이후의 곡물생산

34) Alex F. McCalla(1996). p. 33.

35) 비록 낙관론자들의 견해라 할지라도 지구상에서 기아를 추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소한 1인당 곡물 소비수준이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낙관론이다.

36) Donald Mitchell and Merlinda Ingco. The World Food Outlook. 1993. Alex F. Mecalala(1996). p. 29에서 재인용.

37) IFPRI(1995). p. 27.

이 이미 연간 1%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으므로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연간 2%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³⁸⁾. 특히 이들은 식량의 수급전망과는 별도로 식량의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고려할 때 낙관론자들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앞으로의 곡물수급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농업부문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이다. 일부 곡류, 예를 들면 밀과 쌀의 수량은 과거 30여년 동안 분명히 2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주로 경작하고 있는 옥수수, 수수, 귀리, 두류 등의 수량증가는 밀과 쌀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높지 않다. 과거와 같이 앞으로 30여년 동안 잡곡을 포함하는 곡물의 생산성을 다시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Folmer 등은 1970~90년 기간 중 EU의 농업생산이 매년 2.3%씩 증가하였지만 앞으로도 2%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⁹⁾.

생물공학은 중요한 유전자의 개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실현은 예측보다 늦어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연구가 시작단계에서부터 농민들의 논·밭에서 실용화되기까지는 적어도 20년의 세월을 요한다고 한다⁴⁰⁾. 현재의 추세를 적용하더라도 20년 후면 18억~20억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해 있을 것이고, 증가된 인구 중 3/4 이상은 곡물의 수입이 불가피한 개도국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곡물수급의 최종 귀착지는 개별 국가일 수 밖에 없다. 자기 나라의 곡물은 결국 자신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수입국의 입장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에 관계없이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38) Lester Brown and Hal Kane, Full House : Reassessing the Earth's Population Carring Capacity, 1994. Alex F. McCalla(1996), p. 31에서 재인용.

39) C. Folmer, et al(1995).. p. 56.

40) Alex F. McCalla(1996), p. 36.

V. 맺음말

러시아 의회의 1996년 1월 31일 보고서는 러시아가 30년만의 흉작으로 총필요식량의 60%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는 1995년 7월부터 밀의 역외 반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보조금 정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소득증대에 따른 국내 육류소비의 증가로 1996년 사료곡물을 포함한 2,360만톤(1994년에는 1,370만톤)의 곡물 수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1996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27%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제출되었다. 생산증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비증가로 세계의 곡물재고는 20여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말부터 가격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생산부문의 특별한 호전이 없는 한 1996년의 수급 및 가격전망은 밝지가 않다. 재고량 감소의 가격에 대한 영향은 최소한 1997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면 최근의 가격상승 국면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1900년부터 1995년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짧게는 3년(1972~74), 길게는 5년(1913~17, 1943~47)여 동안 이어갈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든 일과성에 그치고 다시 수십년의 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면 곡물수급문제도 별로 어려운 해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곡물수급과 관련하여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연간 9,000만명 내외의 인구증가가 향후 30여년간 지속될 것이고,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연간 수요량이 2% 내외씩 증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수요의 증가분 만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낙관론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믿고 있다. 비관론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토질 악화, 水量부족, 기술진보의 한계 등 많은 요인이 생산성의 향상을 어

럽게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수출국 중심의 선진국보다는 수입국 중심의 개도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또 WTO 체제하에서는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구조가 수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의 가격상승을 에스컬레이터(escalate)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후자의 입장에서 문제의 소재를 추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재모, 이일영, 1996. 「중국 식량수급의 현황과 전망」, KREI, 연구자료 D37-7.
- 유철호, 1995. 「국제 사료곡물 가격동향과 전망」, KREI, 연구자료 D110.
- 이경원, 1986. 「국제곡물시장과 식량경제」, 한국경제신문사.
- 이정환, 1988. 「한국농업의 선택」, 21세기 농정자료 시리즈, KREI.
- 최세균 외, 1993. 「UR이후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KREI, 연구보고 271.
- 최정섭 외, 1995. 「199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의 농정전망」, KREI, 연구보고 R334.
- 中川 壇, 1995.7. 「21세기의 세계의 식량수급 전망」, 「국제식량농업」, 제387호.
- 竹村健太郎, 1995.12. 「EU의 수출보조금 정지」, 「국제식량농업」, 제392호.
- FAO, 1995.2. 「생명의 물」, 「국제식량농업」, 제382호.
- 朱希剛, 1991. 「種植業生産技術進步評價和經營規模對策」, 「農業經濟與科技發展研究」, 農業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農業部, 1996. 「95中國農業發展報告」.

Alex F. McCalla, 1996.1. Agriculture and Food needs to 2025: Why we should be concerned, the World Bank, “30년후의 세계농업과 식량수요”, 「국제식량농업」, 393호.

C. Folmer, et al., 1996.2. Prospectives on European Agriculrure in 2020, 2020 Vision, Brief 26, Aug. 1995. “2020년 EU농업에 대한 전망”, 「국제식량농업」, 제394호.

FAO(GIEWS), 1996. Food Outlook, No. 1/2, FAO.

_____, 1996. Food Outlook, No. 3/4, FAO.

FAO, 1996. Food Security Assessment - FAO Technical Report, No. 7.

IFPRI, 1995. Population and Food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ry, Washington D.C.

Jerry A. Sharples, 1995. Is A Crisis Ahead for World Grain Market? CHOICES, Fourth Quarter.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1994. The Russian Far East.

제 2 주 제

사료곡물의 국제수급 전망 및 대책

이 병 열(축협중앙회 사료사업부장)

〈 목 차 〉

- I. 최근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 1. 최근 국제곡물 가격동향과 특징
 - 2. 전 망
 - 3. 추진대책
- II. 해외농업투자지원
 - 1. 검토배경
 - 2. 과거의 농업개발경험과 평가
 - 3. 추진방안검토
 - 4. 현실적인 제약여건
 - 5. 정부의 지원방안
 - 6. 향후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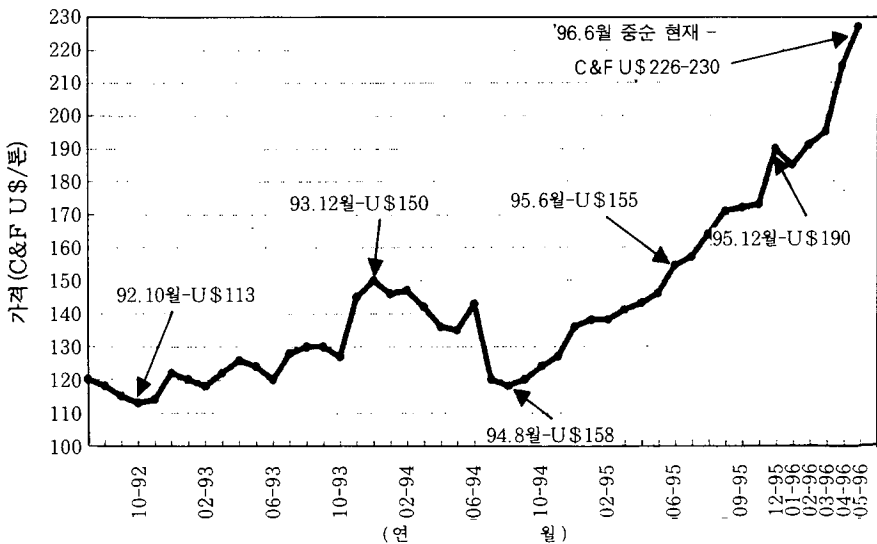
빈

면

사료곡물의 국제수급 전망 및 대책

I. 머리말

〈미국산 옥수수의 국내도착가격 변동추이〉



- '96. 5월 중순 현재

금년 7-11월 도착분(구곡기준) : C&F US\$ 225~230/톤

12월이후 도착분(신곡기준) : C&F US\$ 180~185/톤

- 최근 폭등세의 주요원인

- 공급량 부족에 의한 극심한 재고부족
- 미국내 사료소비량 감소부족(Feed Rationing 부족)
- 수입국들의 수요지속
- 신곡 파종지연 우려 및 향후 작황기 동안의 일기불안 심리
- 미국 소맥작황 지역의 가뭄, 강우과다에 의한 국제 소맥가격의 급등세 영향
- 유럽의 곡물 수출관세 인상조치 등

〈주요 사료원료의 가격변동〉

(단위: US\$/톤)

기간별			1995	1996 평균					
			평균 (A)	5월	7월	9월	11월	평균 (B)	증감율 (B/A)
품목별									
옥	수	수	157.00	240.00	230.00	225.00	225.00	230.00	+46.5%
소		맥		225	225	220	220	222.50	
호		밀	110.00	-	167.60	195	195	168.87	+53.5%
대	두	박	197.40	243.90	271.48	302.89	287.63	271.13	+37.4%
채	종	박	105.41	131.16	136.29	150.81	165	142.13	+34.8%
소	맥	피	117.58	132.74	149.81	176.47	195	165.98	+41.2%

- 소맥, 옥수수 등 곡류가격의 급등

- 곡류외의 주요 사료원료 가격의 동반상승

○ 배합사료원료 가격인상 압박 가중 및 수급불균형 우려

Ⅱ. 사료곡물시장 현황

1. 세계 조곡 수급현황

〈조곡 수급현황 : '96.5.10자 미농무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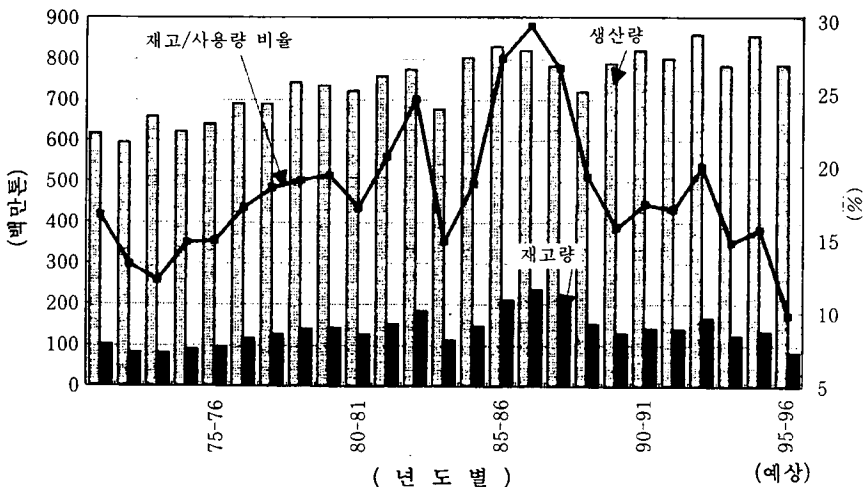
- 옥수수, 보리, 호밀, 수수, 귀리, 기장 및 기타 곡류

(단위:백만톤)

구 분	연도별	'91/'92	'92/'93	'93/'94	'94/'95	'95/'96 (예상)
기초재고(A)		134.5	134.6	162.8	121.0	132.6
생산량(B)		805.0	865.3	790.2	861.5	787.4
수출량		96.1	91.3	85.3	103.1	106.6
총소비량(C)		804.9	837.1	831.9	850.1	837.5
기말재고(D=A+B-C)		134.6	162.8	121.0	133.6	82.5
재고/사용량비율(%) (D/C×100)		16.7%	19.4%	14.5%	15.7%	9.9%

〈최근 25년간 전세계 조곡 수급현황〉

- '96.5.10자 미농무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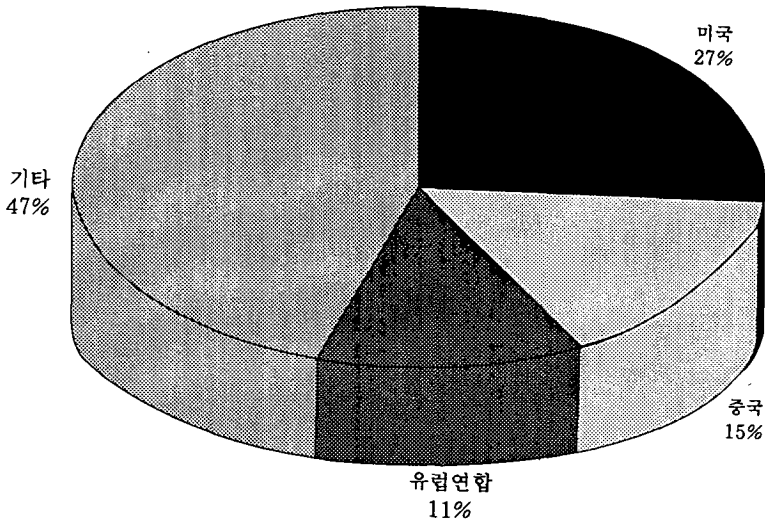
- 연간생산량(약 8억톤)의 약 70%(약 550백만톤)가 사료용으로 소비
- '95/'96 총사용량에 대한 재고비율 : 9.9%(사상 최저치)

〈 '95/'96 조곡 생산량〉

- '96.5.10자 미농무성 자료

(95~96년 조곡 생산량)

* 전세계 : 787.4백만톤



〈 '95/'96 국별 곡물 생산량〉

- '96.5.10자 미농무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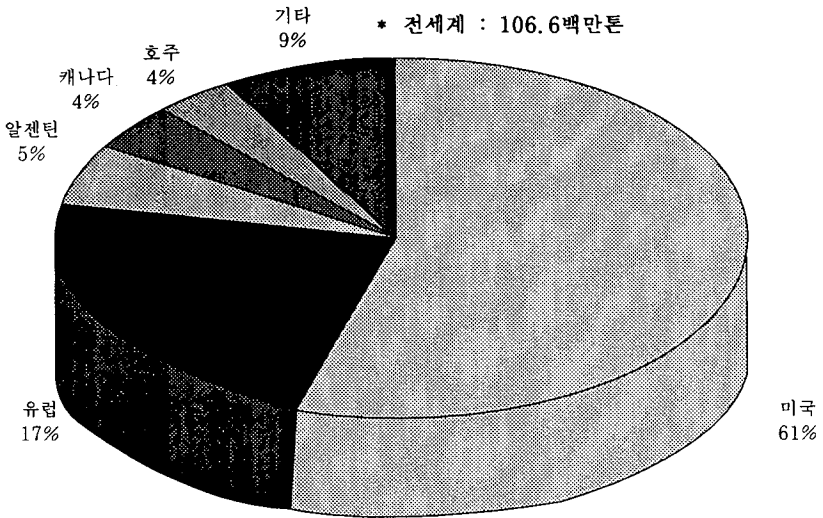
(단위: 백만톤)

국별		미국	중국	유럽	캐나다	호주	남아공	기타	계
품목별									
밀		59.5	100.0	86.6	25.4	16.6	8.1	238.5	534.7
조곡	옥수수	187.3	108.0	28.8	-	-	10.5	171.9	506.5
	기타	22.1	13.6	59.3	24.1	9.1	-	152.7	280.9
	소계	209.4	121.6	88.1	24.1	9.1	10.5	324.6	787.7
계		268.9	221.6	174.7	49.5	25.7	18.6	563.1	1,322.1
(점유비: %)		20.3%	16.8%	13.2%	3.7%	1.9%	1.4%	42.6%	100%

〈'95/'96 조곡 수출량〉

- '96.5.10 자 미농무성 자료

(95~96년 조곡 수출량)



- 미국이 전세계 조곡 수출량의 61% 차지

〈'95/'96 국별 곡물 생산량〉

- '96.5.10자 미농무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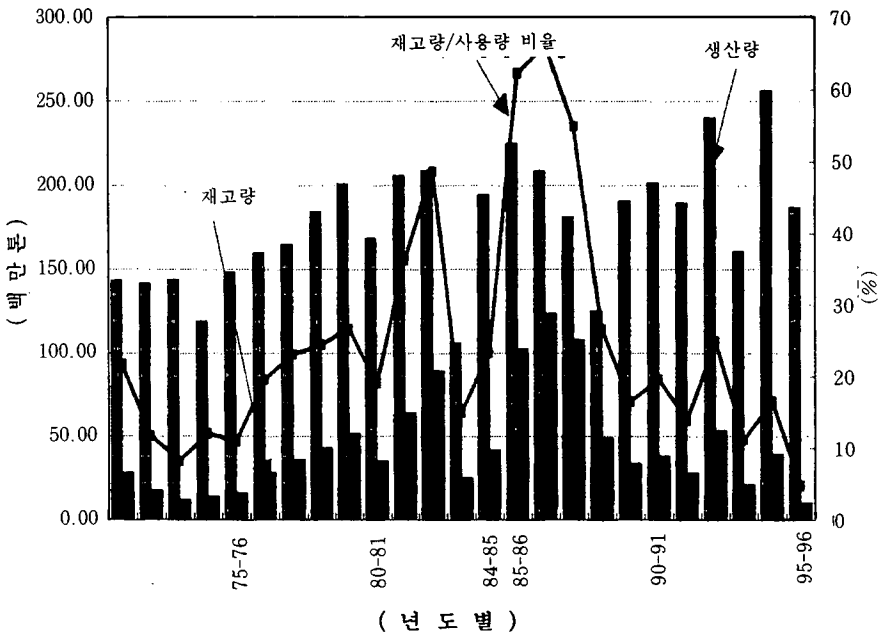
(단위:백만톤)

국별 품목별		미국	중국	유럽	캐나다	호주	남아공	기타	계
밀		35.4	0	29.1	17.9	13.0	-	15.5	110.9
조 곡	옥 수 수	58.4	0.5	6.6	-	-	2.5	9.9	77.9
	기 타	6.2	0.1	12.0	4.3	4.1	0	1.3	28.6
	소 계	64.6	0.6	18.6	4.3	4.1	2.5	11.9	106.6
계		100.0	0.6	47.7	22.2	17.1	2.5	27.4	217.5
(점유비:%)		46%	0.3%	22%	10%	8%	1%	13%	100%

2. 미국의 옥수수 수급현황

〈최근 25년간 미국산 옥수수 수급추이〉

'96.5.10자 미농무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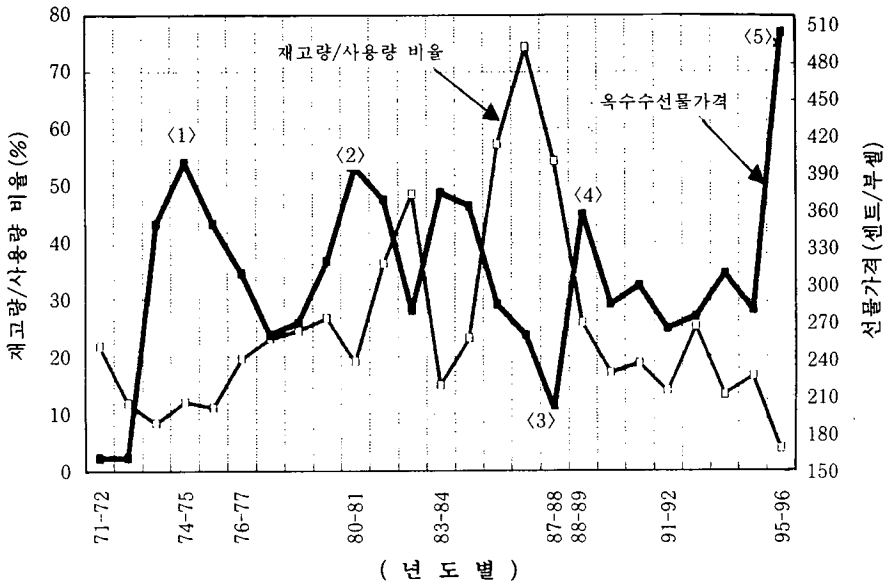


'95/'96 미국산 옥수수의 생산량 및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27%, 80% 격감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재고비율이 4.3%로서 사상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

- 총사용량에 대한 재고비율 - '95/'96 : 3.7%(사상최저치)

'73/'74 : 8.2%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과 재고비율의 상관관계〉



장기추세에서 상반관계를 가지고 있는 옥수수 사용량에 대한 재고비율이 '95/'96년 사상 최저치를 보임에 따라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1) '74/'75년 가격 급상승(US\$4/부셸)

- '73. 5월 구소련의 갑작스런 수백만톤의 미국산 곡류구매
- '74년 가뭄, 1차 오일쇼크

(2) '79/'80년 소련의 대량구매 및 가뭄에 의한 가격급등

(3) '87/'88년 가격폭락 → 미국의 '84년 이후 연속 생산량 증가 및 세계각국의 농업분야 투자증가에 의한 재고급증

(4) '88/'89년 미국내 가뭄에 의한 가격급등

(5) '95/'96년 가격급등

- 미국 생산량 격감, 중국의 수출중단 및 수입국 전환, 동남아 수요강세 지속 → 재고부족

〈연도별 미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96.5.10자 미농무성

(단위:백만톤)

구분 연도	기초 재고 (A)	생산량 (B)	총공급 (C=A+B)	국내 수요 (D)	수출량 (E)	총수요 (F=D+E)	기말 재고 (G=C-F)	재고 비율(%) (G/F)
85/86	42.0	225.7	267.6	133.8	31.2	164.9	102.6	62.2%
86/87	102.6	209.0	311.6	149.2	37.9	187.6	124.0	66.1%
87/88	124.0	181.2	305.2	153.4	43.6	197.0	108.2	54.0%
88/89	108.2	125.3	233.5	133.0	51.5	184.4	49.0	36.6%
89/90	49.0	191.2	240.2	145.9	60.2	206.1	34.1	16.6%
90/91	34.1	201.6	235.8	153.3	43.8	197.1	38.6	19.6%
91/92	38.6	190.4	229.0	160.8	40.2	201.1	27.9	13.9%
92/93	27.9	241.3	269.2	173.1	42.2	215.3	53.7	24.9%
93/94	53.7	161.5	215.1	159.8	33.7	193.6	21.6	11.2%
94/95	21.6	256.9	278.5	183.6	55.3	238.9	39.6	16.6%
95/96	39.6	187.7	227.3	160.8	58.4	219.2	8.1	3.7%
96/97	8.1	238.4	246.5	173.7	53.3	227.1	19.4	8.5%

〈'95/'96 미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 월별 미농무성 발표

구분	연월	'95.5	'95.9	'95.12	'96.3	'96.5
파종면적(백만에이커)		75.3	71.3	71.2	71.2	71.2
수확면적(백만에이커)		68.5	64.7	64.8	65.0	65.0
단위면적당 생산량 (부셀/에이커)		125.6	121.1	113.7	113.5	113.5
기초재고(백만부셀)		1,588	1,463	1,558	1,558	1,558
생산량		8,600	7,832	7,374	7,374	7,374
수입량		10	10	10	15	15
총공급량(A)		10,198	9,305	8,942	8,947	8,947
국내수요(백만부셀)		7,200	6,575	6,225	6,285	6,330
사료용		5,400	4,825	4,575	4,575	4,700
식료/종자/공업용		1,800	1,750	1,700	1,700	1,630
수출량		2,000	2,000	2,050	2,250	2,300
총수요량(B)		9,200	8,575	8,325	8,535	8,630
기말재고(백만부셀)(C=A-B)		988	730	617	412	317
재고/총수요비율(%) (C/B×100)		10.8%	8.5%	7.4%	4.8%	3.7%

3.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현황

〈경제성장률(GDP)〉

아시아개발은행 자료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성장률(%)	8.0%	13.2%	13.4%	11.5%	9.0%

-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 5년동안 평균성장률 10% 이상을 유지

〈생필품의 국내가격 변동추세〉

구 분	농산물 (Yuan/톤)	쇠고기 (Yuan/kg)	계란 (Yuan/kg)	주류 (Yuan/kg)
1985(A)	383	3.2	2.69	2.8
1994(B)	660	8.0	6.10	7.5
상승율(B/A)	+72%	+150%	+127%	+168%

- 10년간 축산물(육류)가격은 100% 이상 상승하였으나 농산물가격은 상대적으로 저상승을 유지

〈식료품 생산량〉

(단위:천톤)

구 분	농산물 (쌀, 밀, 콩, 옥수수, 감자)	축산물 (소, 돼지, 양, 가금류, 토끼)	계 란	우 유
1985(A)	379,110	19,270	5,350	2,890
1993(B)	456,400	36,200	10,910	6,600
상승율(B/A)	+20.4%	+87.9%	+104%	+128%

- 농산물 생산증가율이 육류 및 유제품 생산증가율에 비해 훨씬 낮음

〈곡물 경작면적〉

(단위: 천ha)

구분	옥수수	밀	쌀	곡류전체
1985(A)	17,690	29,220	32,070	108,860
1993(B)	20,690	30,240	30,360	110,510
증가율(B/A)	+17%	+3.5%	-5.3%	-1.5%

- 중국정부의 농산물 수매가격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낮은 수준에 고정
: 생산자들이 경작면적을 확대할 동기부여 결여
- 1994년 중국내 쌀가격 급등
: 일본의 흉작으로 인한 중국산 쌀 긴급구매 영향
- 1994년 중국내 옥수수가격 급등
: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의 급증은 불가능

〈1990 연간 1인당 식료품 소비량/2000년 정부의 목표〉

구분	계란	육류	우유
1990년 중국	약 100개	20kg	4.2kg
(일본)	(약 330개)	(29kg)	(84.8kg)
2000년 정부의 목표	약 200개	25kg	8.0kg

- 1990년 계란, 설탕과 같은 기초식료품의 1인당 소비량이 일본의 1/3 수준
- 돈육소비량이 육류소비량 중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쇠고기 소비량도 점차 증가 예상
- 따라서 사료곡물 소비량도 증가할 것임.

- 육류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곡물량
 - 돼지고기 : 3.5kg
 - 쇠고기 : 8kg
 - 닭고기 : 2.2kg

〈대 일본 국별 Broiler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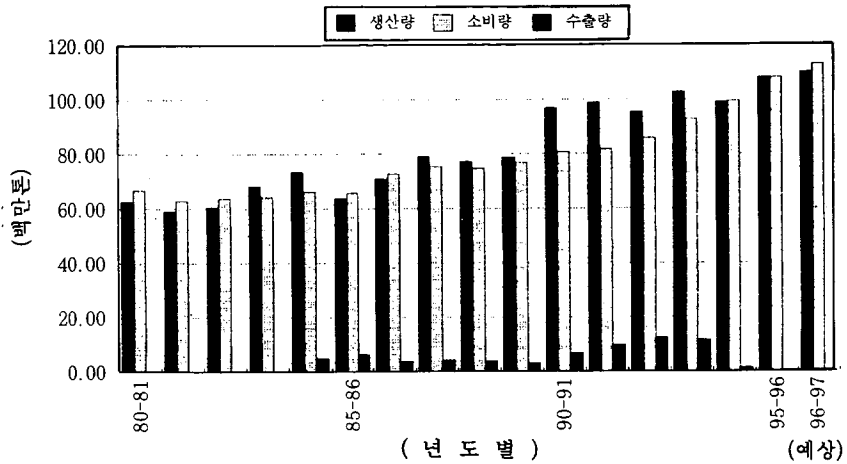
(단위:톤)

연도	중국	미국	대만
1986	14,233	75,471	63,599
1992	58,867	111,700	142,328
1993	82,786	117,041	122,986
1994	127,322	122,745	114,631
1995	196,952	125,249	114,872

- 일본에 대한 중국의 브로일러 수출량은 1994년부터 미국을 능가하여 대 일본 최대 브로일러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5년에는 19만 여톤을 수출함.
-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출보다는 Broiler와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품목 수출지향 정책에 기인
- 중국 내부 및 주변환경
 - 중국의 항구시설 부족
 - 자국내 사료곡물 가격의 고가형성
 - : 가금산업 수익성 악화
 - (육류가격상승 → 소비둔화)
 - 옥수수가격 상승 : 생산자 및 유통업자들의 저장선호로 수급혼란
 - 시카고 선물시장 가격이 US\$5/부셸 이상 또는 국제가격이 중국내 가격을 상회할 경우 수출가능성 대두

〈중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1996.5.10자 미농무성 자료



〈 연 도 별 〉

(단위:백만톤)

연도 구분	'85-'86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생산량	70.9	96.8	98.8	95.4	102.7	99.3	108.0	110.0
소비량	72.6	80.9	81.8	86.5	93.1	99.6	108.0	113.0
수입량	1.6	0.2	0	0	0	4.3	2.0	2.0
수출량	3.8	6.9	10.0	12.6	11.6	1.5	0.5	0.5

- 1991년이후 1천만톤 이상의 옥수수를 수출하던 중국은 1994년 처음으로 자국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가격급등, 순수 수입국으로 전환, 국제 곡물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Ⅲ. 향후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전망

1. '96/'97 미국산 옥수수 수급전망

- 근거: '96.5.10자 미농무성 자료

구 분	'95/'96 (A)	'96/'97 (B)	증감율 (B-A/A) × 100
파종면적(백만에이커)	71.2	81.0	+13.8%
수확면적(백만에이커)	65.0	74.4	+14.5%
단위생산량(부셀/에이커)	113.5	126.0	+11.0%
이월재고(백만부셀)	1,558	317	-79.7%
생산량	7,374	9,375	+27.1%
수입량	15	10	-50.0%
총공급량	8,947	9,702	+8.4%
사료용(백만부셀)	4,700	5,150	+9.6%
식용, 종자 및 산업용	1,630	1,690	+3.7%
수출량	2,300	2,100	-8.7%
총소비량	8,630	8,940	+3.6%
이월재고(백만부셀)	317	762	+140.4%
재고/사용량 비율(%)	3.7%	8.5%	+4.8%

- 1996.5.10자 미농무성의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평년작을 기록할 경우에도 '95/'96 기말재고의 부족과 자국내 수요강세로 장기 가격추세에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총사용량에 대한 재고비율이 8.5%로 추정. 수급불안 및 가격강세 지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2. 미국산 옥수수의 자국내 분기별 사료용 소비량

(단위:백만부셀)

구분 분기별	'73/'74	'74/'75	전년 동기 대비	'94/'95	'95/'96	전년 동기 대비	비고
1/4	1,469	1,170	-20%	2,015	1,171	-12.2%	()는 예상치
2/4	1,171	925	-21%	1,149	1,340	-10.6%	
3/4	643	473	-27%	1,164	(944)	(-18.9%)	
4/4	937	669	-29%	856	(645)	(-24.6%)	
계	4,220	3,237	-23%	5,534	(4,700)	(-15.1%)	

* 곡물년도(9.1~8.31) 기준이며, 1/4분기의 경우 9.1~11.30임.

- '95/'96 사료급여량을 미농무성 예상치인 4,700백만부셀(119.4백만톤)로 줄이기 위해서는 표에서와 같이 3,4분기 동안 엄청난 사료급여량 감소(Feed Rationing)가 일어나야 함.
- '73/'74 원료가격이 현재와 같이 급등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74/'75 1/4분기에 이미 Feed Rationing이 20%가 일어났음.
- 금년은 수급상황이 지난 '74/'75년 보다 불안하나 1,2분기 동안 수요의 감소폭은 전년대비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3,4분기 동안의 수요량 감축이 예상과 같이 일어나기는 현재로서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향후 사료곡물가격 전망

(강세요인)

- 옥수수 가격의 고가행진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가축사양 두수 감

축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96.3.4분기 동안 현재와 같이 가축두수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미국산 옥수수의 이월재고는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측

- 세계 최대 곡물수입국인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수입지속
- 4월 파종기부터 10월 수확기까지의 일기급변에 대한 불안
- 미국 소매작황지역의 가뭄지속으로 인한 국제 소매가격 급등세의 옥수수가격에 대한 파급영향 등

(약세요인)

- 중국산 옥수수의 수출재개 가능성 : 심리적 영향은 다소 크나 물량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 미국의 수출금지(Embargo) 또는 제한(Limitation)
: 자국내 축산물가격 안정 또는 재고유지를 위하여 가격폭등시 신곡이 가시화되는 오는 6,7월에 시행 가능
('73년 가격급등으로 인한 대두 수출제한, '79년 아프간 사태시 대 러시아 곡물수출금지 후 과잉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문제로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시행 가능성은 희박)

(결 론)

-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가격상승 가능성은 크나 미국의 수출금지 또는 제한, 중국의 수출가능성 등 약세요인은 미약함.
- 따라서 현재 구곡(국내 11월초 도착분까지)의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은 없음.
- 또한 신곡도 작황기 동안의 양호한 일기에 의한 풍작이 없는 한 구곡의 심각한 재고부족 여파에 의한 수급불안 악화로 곡물가격 강세의 장기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Ⅳ. 국내 사료산업의 문제점

- 사료곡물 폭등 및 기타원료의 동반상승
 - 국내 배합사료가격 인상 요인
 - 사료수급 불균형 우려
- 사료원료 다양화에 따른 부작용
 - 부원료 하역시설 미비(창고부족, 비산먼지)
 - 부원료의 관세율이 높고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 미흡
- 축우사료의 배합사료 의존도 과다
 - 조사료부족에 따른 배합사료 소비량 과다 상태

〈국내 조사료 수급현황〉

(단위:천톤)

총소요량	생 산 량			부족량	자급율
6,155	양질 조사료	초지	464	2,770	55%
		사료작물	691		
		소계	1,155		
	벼	짚	등		
	계		2,230		
			3,385		

- 부족되는 조사료 수입지난('96 MMA 물량 : 20,708톤)

V. 대 책

배합사료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의 사료가공업체들이 제한된 원료, 제한된 수출국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기는 지난하나 국내 축산관련단체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내의 부존자원개발

- 사료작물(옥수수, 엔시레지) 재해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이용 가능한 사료자원을 개발하고 또한 그 이용을 극대화해야 하며 배합사료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를 간접적으로 줄여야 함.

○ 둘째, 대체원료 확보

- 현재 MMA로 수입제한되어 있는 사료용원료의 한도량 확대
 - 수입조사료의 MMA 한도량 확대('96 한도량 20,708톤)
 - 보리(50,000톤), 기타 사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
- 타피오카, 비트펄프 등 대체원료 수입확대

○ 셋째, 수입사료원료 관세의 최저세율 및 부원료의 의제매입 세액적용

- 수입사료원료 관세의 무세 또는 최저세율 적용
- 수입사료원료 의제매입세를 모든 원료에 확대적용

〈사료원료 수입관세율 현황〉

품 목		기본세율 (%)	할당세율 (%)	의제매입	비 고
곡 류	옥수수, 소맥, 보리	5	1	적용	
	타피오카	3	-	적용	
	호 밀	3	1	적용	
	수 수	3	2	적용	
부 원 료	대 두 박	3	-	미적용	
	소맥피, 탈지강	5	-	미적용	
	채종박, 면실박	5	-	미적용	
	팜 박	5	-	미적용	

○ 넷째,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

- 배합사료 가격인하 효과 : 9.09%

○ 다섯째, 국제 곡물가격 급변에 따른 리스크(Risk)관리

-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곡물수입이 단순한 대량 일괄 구매 방식(Flat Buying)에 의존하고 있어 구매후 곡물가격 급변에 따른 위험관리가 어려우므로 곡물수입에 따른 구매기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러한 Risk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선물시장에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세계 곡물시장에서 구매자가 직접 구매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C&F의 일괄구매를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선물, Basis 및 운임의 각각 시황변동에 의한 분산구매하는 다양하고도 융통성 있는 구매기법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배합사료원료 공급기반시설 구축
 - 부두 SILO
 - 부원료 창고
 - 조사료 물류기지 창고 등

제 3 주 제

최근의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

최 용 규(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장)

〈 목 차 〉

I. 머 리 말

II. 사료곡물시장의 현황

1. 세계 조곡 수급현황
2. 미국 옥수수 수급현황
3. 중국 사료곡물 수급현황

III. 향후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1. '96/'97 미국산 옥수수 수급전망
2. 미국산 옥수수의 자국내 분기별 소비량
3. 향후 사료곡물가격 전망

IV. 국내 사료산업의 문제점

V. 대 책

빈

면

최근의 국제곡물 수급동향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

I. 최근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1. 최근 국제곡물가격 동향과 특징

가격 및 수급동향

- 최근 국제곡물시세는 1988~89년의 높은 수준이래 17~18년만의 최고가격임
 - 밀가격은 작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206\$/톤, 옥수수는 82%증가한 202\$/톤 수준
- 수급면에서는 세계적인 기상재해로 곡물생산이 감소한 반면, 중국·러시아 등의 수요증가로 재고수준은 1995년 17%에서 1996년에는 13%로 감소 전망
 - 2차대전 이후 국제곡물시장은 부족과 과잉현상이 반복(13~16

년주기) : 1차 부족기('45~'52), 2차 부족기('59~'66), 3차 부족기('72~'82)

- 금번의 곡물재고 감소는 73/74년의 16.1%보다 더 낮은 재고 수준 전망(FAO의 권장재고율 17%)

〈세계 곡물가격 및 재고추이〉

(가격: \$/톤 FOB, 재고: 백만톤, 재고율: %)

구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5
가 격	밀	116	113	147	172	131	136	165	140	146	174	206
	옥수수	90	77	108	112	109	108	104	102	106	119	202
	콩	199	204	287	259	228	221	221	240	240	235	309
곡물재고		300	414	360	265	241	280	268	308	263	247	183
재고율		30.2	31.6	26.9	20.2	17.9	20.4	19.7	22.2	18.9	17.7	13.3

〈곡물별 최근동향〉

	기말재고('95/'96: 백만톤)	가격('96.5: \$/톤)
밀	98.6(△15.0%), 재고율 18%	206(28.0% ↑)
콩	16.6(△27.2%), 재고율 13%	309(39.2% ↑)
옥수수	56.0(△38.9%), 재고율 10%	202(82.0% ↑)

*() 내는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주요특징과 배경요인

〈특 징〉

- ① 금번의 곡물가격 상승은 1989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다가 1993년부터 꾸준히 상승
- ② 곡물재고는 1986년 이래 계속 하락추세를 보여, 금년 기말재고는 13% 수준으로 1970년대의 식량위기시(73/74년)의 16.1%를 하회한 수준

- 재고율: (85/86) 30.2% → (89/90) 17.9% → (94/95) 17.7% →
(95/96) 13.3%

- ③ 미국·EU 등 전 세계적인 곡물정책의 전환, 기상재해 등과 겹쳐
원인 해석을 두고 비관론과 낙관론의 양론이 대립중

〈배경요인〉

- ① 수출 선진국들이 1995년의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감소 및 재고감
소로 공급여건 강화
- ② 밀생산국인 미국 북부지역의 강우량 부족예보 등으로 1996년 생
산감소 전망
- ③ WTO 출범으로 인한 수출 및 국내보조금의 감축 등의 요인이 감
산요인으로 작용
- ④ 1980년대 중반까지 수출국이었던 중국·러시아 등이 국내수요 급
증으로 새로운 곡물 수입국으로 등장
 - 중국은 1994년까지 연간 옥수수 1,000만톤을 수출하였으나
소득증가로 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 1995년 450만톤,
1996(1/4) 200만톤의 옥수수를 수입

2. 전망

금번의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등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곡물에 대한 수요감축과 생산증대를 초래할 것 이므로 중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단기적 전망

〈가격등귀 요인〉

- ① 국제 곡물상들의 곡물위기 분위기 조성 우려

② 미국 밀 생산지의 강우부족으로 1995년 가을파종이 늦어져 감산전망

③ 중국의 국내 축산물 수요증가로 인한 곡물수요 증대 전망

〈가격 안정요인〉

① 주요생산국의 생산조정 계획의 폐지 또는 조정

- 미국 : 휴경제도 철폐와 농민의 생산자율을 최대한 살린 신농
업법(1996 Farm Bill)의 발효(1996.4)로 곡물생산
면적이 늘어날 전망

- EU : 휴경지 비율을 12% → 10%로 인하

②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른 1996년 식부면적의 확대

- 국제곡물이사회 : 세계 밀 재배면적 3.3% 증가 전망

- 미농무성 : 미국 옥수수 재배면적 12.2% 증가 전망

③ 호주·인도 등이 곡물작황의 호조가 예상

⇒ 일기가 순조로울 경우 1996년산 수확기(미국 겨울밀 6월말, 옥수
수, 콩 9월말)부터 곡물 수급사정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
나 수확기까지는 각국의 곡물 확보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
므로 곡물가격은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장기전망

=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동향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어 왔음 =

낙 관 론

(OECD, WTO, 곡물수출국)

○ 세계적 곡물파동은 짧은 기간내에 해소

○ 인구증가 등에 의한 곡물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등으
로 세계 곡물생산 능력은 계속 증가

-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식량작물 분야에도 공장제 생산방식
가능

- 식품 가공기술의 고도화와 보관기술의 향상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용이
- 비교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식량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

비 관 론

(FAO, World Watch, 곡물수입국)

- 현 과학수준하에서의 세계 곡물문제는 기본적인 해결이 곤란하며, 믿을 수 없는 것이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 공업화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면 농업 생산능력의 증대도 한계에 봉착
 - 토지·수자원의 제약, 비료·농약 사용에 의한 생산성 증대 한계
 - 제3세계의 지속적 인구증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식량 및 사료용 곡물의 수요 증대
- * 지난 20년간 세계 전체의 주식용 곡물류 1인당 생산증가는 17%임에 비하여 향후 20년간 세계 인구증가는 36% 전망
- 무역자유화는 위기상황시 식량안보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70년대초 : 미국의 콩 금수조치(국내사료 수급안정 목적)
 - 80.6~81.4 : 미국의 대소련 곡물 금수(아프간 사태)
 - 95.5 : 베트남의 쌀 금수(국내 쌀 가격 통제)
 - 95 : EU의 밀·보리에 대한 수출세 부과

3. 추진대책

그간 민간업계에서 곡물재고 감소 및 가격상승에 대비 선 물·사전구매를 실시, 2~5개월치의 곡물을 미리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제품에 미치는 가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단기대책〉

(1) 국제 곡물시장 동향을 종합분석하여 적극 대처

- 각국의 주요곡물 식부면적, 기상조건, 선물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국내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구매 추진
- 위험분산과 유리한 구매조건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 구매방법과 시기, 수입곡종을 다양화
 - * 한국은 도입사료곡물 중 대부분(95%)이 옥수수이나 일본 대만은 수수의존율이 각각 30%, 10%에 달함

(2) 곡물별 수입관련 협의회를 종합, 곡물대책 협의회로 통합운영

- 국제 곡물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및 대응전략 상호협의
 - * 구성 : 축협, 유통공사, 제분협회, 민간제분회사등 11개 기관으로 구성

○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을 감안, 월 1~2회 개최

(3) 수입관세 및 수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 저율관세 수입물량(MMA, CMA)의 수입시기·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현재 곡물 및 조사료 수입시 할당관세 인하 추진
- 축산배합사료 부가세의 영세율 추진(재경원과 협조)

(4) 중장기대책

-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제곡물 파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 대응전략 연구
- 민간비축 지원 검토

- 국제 수급동향과 외국의 비축제도를 면밀히 검토, 필요한 경우 비축시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지원 검토
-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 검토
 - 과거 70년대의 정부주도의 농업이민방식에 의한 농업개발사례와 80년대 민간자본에 의한 직접투자, 고합, 대륙개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방농업개발 등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
- OECD, APEC 등 각종 국제회의체에 우리의 입장 강화노력
 - 수입국 다변화 노력
 - 곡물수입국이 미국 등 5~7개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위험분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수입국 다변화 정책이 필요
 - 국제회의 등에서의 국내생산을 통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입장 반영
 - OECD, FAO, APEC 등 국제 FORA에서 수출국 중심의 무역 및 식량안보 논리에 대응하여 우리 입장반영 노력 강화
 - ※ FAO의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 '96. 11. 13~17, 로마) 참여

II. 해외 농업투자 지원방안

1. 검토배경

가. 농산물의 해외의존도는 점차 늘어날 전망

- WTO 체제출범 및 수입자유화로 콩, 옥수수 등 곡물수입 증가
- 특히 통일 한국시대를 전망시 곡물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나. 농업분야에도 해외진출 여력이 생김

- 제조업·서비스분야는 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에 활발히 진출
- 농업분야의 해외투자 자유화와 아울러 기업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비판시각이 완화됨

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식량 수급불안정 사태 대비

- 중국의 국내수요증가 등 세계 곡물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경지면적 감소,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곡물생산능력 증대의 한계
- 세계식량 수급상황이 어려울시 해외농업 투자자들이 경영측면에도 도움을 주면서 국내 부족 곡물의 확보에 도움
⇒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 및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해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2. 과거의 해외농업개발 경험

80년대 이전

가. 정부주도에 의한 추진 : 남미농장개발(5)

- '68~'81년간 아르헨티나(3), 칠레(1), 파라과이(1) 등 모두 25,304ha를 매입(토지가 459만\$), 52세대가 농업이민으로 진출, 대부분(44세대) 이탈
- 5개 농장중 2개(야파마우까, 떼노)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매각중이거나 이미 매각됨

〈문제점〉

- 지역선정시 자연여건이 유리한 곳(산하비엘)도 있었으나 당초부터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야따마우까)도 있었으며, 현지 정부의 이주 불허정책으로 중단된 곳도 있음(테노)

- 농업이민으로 추진했으나 비적격자 선발로 사업중도포기 및 이탈 등으로 외교적 문제로 비화
⇒ 5개 농장 개발시도후 중단하였으며 국내 대기업에 의한 농장 재활용 추진 등, 개발시도가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함

나.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 (주)선경의 옥수수 농장개발

- '81~'83 (주)선경이 미국 와싱턴주에 3,300ha에 농장 임대개발 추진(별도 사회간접시설 조성 불필요)
- 민간기업이 수익성 위주로 추진
 -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30\$/톤의 구매 인센티브 제공

〈문제점〉

- 옥수수 생산후 국제가격의 하락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보장이 어려워 중단

90년대

- 민간에 의한 해외투자가 장려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투자 제한이 완화됨.
- 수입자유화폭이 확대되고 특별한 구매상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김.

가. 대륙개발의 삼강평원 개발

- '94~'98년 38,000ha의 농지를 조성('92년부터 70년간 사용계약)
- '94년에 개발착수, '95년에 콩 2,222톤(1,010ha), 밀 1,300톤(520ha)를 생산 현지판매(수출권 확보 50%)
 - 생산비 : 콩 87\$/톤, 밀 51\$/톤
 - 수송비 및 기타 경비 : 40\$/톤

나. 고합물산의 러시아 아무르주 및 연해주 농업투자

- '95~'99년 한·러 합작투자로 추진(자본금 25,000천\$)
 - 러시아측은 구소련 시대의 국영농장을 현물출자하고 고합측은 이에 상응한 현금출자
- '95년에 2,000톤(2,000ha)을 생산, 800톤 정도를 국내 대두유 가공회사에 납품시도 했으나 착유율이 나빠 포기
 - * 최소 선적단위보다 수입물량이 적었음

라. 기타

- 삼성그룹에서 호주에 목장(1,730만평) 매입추진('96.7부터 운영 예정)
- 한일그룹, (주)세모에서 러시아 연해주지역 농업개발추진 중

3. 추진방안 검토

가. 추진방향

- 정부주도의 개발보다는 수익성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
- 정부는 민간기업의 진출시 애로부분에 대하여 간접지원
 -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 토양, 지질조사 등

나. 추진주체

- ① 민간(기업)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작목을 선택하여 진출하는 경우
 - 대기업은 조직·정보·자본·경영기술 등에서 상대적 우위 가능
 - 대기업의 경우 농업개발로 시작하여 1차산품의 가공업 등 관련업종에 진출이 용이
 -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국내반입후 판매선 확보 필요
 - * 국내사료가공업체는 가격·품질면에서 유리한 경우라야 수입 가능하다는 입장
- ② 축협 등 실수요자가 사료곡물 등을 재배수입하는 경우
 - 축협의 경우 초지생산, 사료가공 및 국내공급 등에 경험과 know-how 보유
 -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므로 국내반입시 판매애로 적음

라. 개발대상지역

- ① 북방권(중국, 러시아 : 옥수수, 콩, 밀 등)
 - 부존자원 풍부, 비옥한 토지 등 여건이 좋음
 - 수송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유리, 수확후 처리기술 불필요
 - 연해주 자루비노항에서 부산까지 2,500km(42시간)
- ② 동남아권(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 쌀)
 - 베트남의 경우 쌀농사가 중심(노동력의 72%, GDP의 42%, 교역의 30%)
 - 메콩강 개발사업에 현재 농진공에서 현지 조사사업 추진중이며 동사업과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농업개발 참여 가능
 - * 베트남 야수프 다목적사업 : (1997~2001) : 야수프강유역 15천ha에 댐건설, 농업용수 개발, (4천만\$: 베트남 2천만\$, 차관지원 2천만\$)

③ 남미권(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 조사료, 쌀)

- 아르헨티나는 지리적으로 먼곳에 위치하나 대부분 국토가 평원으로 목초개발 여건이 좋음

* 현재 아르헨티나 「산타페」농장(쌀) 경영자 이창호씨의 경우
 - 농지가격은 400\$/10a(평당 100원), 수확량은 400~750 kg/10a

④ 호주권(호주, 뉴질랜드 : 축산농장, 밀)

- 넓은 국토, 청정환경 등 목축업 유리

* 삼성물산에서 96.6월 호주 시드니 북서쪽에 목장(1,730만 평)을 구입, 목축업 추진중(총 투자비 1,000만 호주\$)

4. 현실적인 제약여건

- 농업의 특성상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낮은 점, 곡물가격·정치적상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 콩의 할당관세물량 103만톤의 10% 정도를 해외개발에 의존하는 경우 5만ha~10만ha의 막대한 토지 필요

-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경직적 관료체제, 향만의 불비, 질 낮은 노동력, 경영마인드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 농업개발 참여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지원요구 가능성

- WTO 협정에 의한 제약

- 저율의 현행 시장접근(CMA) 물량(TQ)인 경우 기존 수출국들의 수출실적 등을 존중해 주어야 하므로, 개발수입 물량을 동 물량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수출국의 물량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WTO차원에서 이의제기 소지(GATT 23조)

* 할당관세 물량 : 옥수수 610만톤(3%), 콩 103만톤(5%)

- 수출국들이 생산이 부족할 경우 자국소비를 목적으로 수출금지 조치를 하여도 수입국으로서는 WTO상의 제재수단이 없음.

5. 정부의 지원방안

민간업계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에서 사전 현지조사 및 금융·통상협력 등 민간의 해외농업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

가.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진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 민간기업의 진출희망지역에 대한 자연·토양·지질 등 조사지원
- 종자·종묘와 작물재배, 농업토목, 농기계, 수확후 기술, 농장경영 등 부문에 기술지원
 - ⇒ 농진공, 농진청 등 각계의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토양조사, 생산기반조사, 작물재배 등 기술지원 및 자문
 - *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 지원('96예산 : 122백만원) 확대 추진
 - * 일본의 경우는 해외농업개발 시험조사 등에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차원에서 JICA에서 지원

나. 현지 진출기업(단체)에 대한 지원

-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의 농업부문 지원확대(재경원 협조)
 - 농진공의 메콩강개발 조사사업이 끝나면 이와 연계하여 EDCF로 본격농업개발 사업지원
 - 특히 ASEM 사업의 일환인 민관 메콩강유역 개발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 * '95말 현재 EDCF 자금조성 규모는 8,139억원이며, 이중 농업부분 16억원(0.20%)임.
 - (주)자도(인도네시아), (주)홍안물산(필리핀) 등에 잠견사생산 시설 지원(평균 상환기간 29년, 연리 평균 2.4%)
- KOICA 재원을 농업개발 부문에 투자확대(외무부 협조)

- KOICA자금으로 하는 기초조사 사업을 미얀마 등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확대

(농진공에서 베트남 야수프강 댐건설 등에 대한 조사사업 추진중)

- * '95년 KOICA 자금지원 48,989천\$ 중 농림수산분야는 2,677천\$로 5.4%임.

다. 개발수입 물량에 대한 수요 알선지원

- 개발수입 물량에 대하여 국내에 사료업체 등 실수요자와 연계추진

라. 개발대상지에 대한 정보제공

- 개발대상 지역별로 자연조건·사회간접시설·법률·제도 등 정보제공으로 기업진출 원활화 도모

마.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노력 강화

- 양국간 상호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투자자들의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 현지 진출업체가 애로사항 건의시 개발대상국과 협조하여 문제 해결 지원

6. 향후 추진과제

가. KOICA 자금의 농업개발부문 지원확대(외무부와 협조)

-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농진청 및 농진공 등 관계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KOICA 자금으로 지원

나. 민간기업에 대한 EDCF 자금지원(재경원 협조)

- 민간기업이 희망할 경우 타당성검토 후 EDCF 자금 지원

○ 필요한 경우 EDCF의 규모를 늘리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EDCF 관리주체는 재경원이며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재경
원장관, 위원 : 농림수산부·외무부장관 등 9명)에서 기금운용
방침 결정

* 지원대상국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금리, 상환기간에 차등
(1.0%, 30년~5.0%, 10년)

다. 관련기관·단체가 콘소시움을 형성, 사료곡물 생산 방안 검토

○ 축협·사료협회·농진공 등 공동참여 추진

- 농진공의 기초조사 및 기반조성, 축협의 사료생산 및 가공기술
등을 결합

⇒ 해외농업개발 관련 정책과제와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
편, 연구용역과제로 추진하여 정책방향 제시

[참고 1]

남미지역 해외농장 실태

농장 구분	얏다마우까	산하비엘	루 항	때 노	산페드로
소 재 국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면적 (ha)	20,894	2,714	11	185	1,500
구 입 일 자	'78.8	'81.3	'71.3	'80.12	'68.4
토지가 (\$)	2,115,000	1,912,235	18,887	532,900	11,621
소 유 권	KOICA	KOICA ('97말 매각예정)	매각 ('89.10)	KOICA	KOICA ('97말매각예정)
이주자현황	○ 구입이후 유휴상태 ○ 매각 검토중	○ '90년대 1세대잔류		○ 칠레정부 입국불허 ○ '88.5 임대중	○ 현재 3세대 영농중
영 농 조 건	염분함유, 영 농 부 적 지	양호	양호	양호	영농주거조건 비교적양호
재 배 작 물		쌀, 옥수수, 채소, 농목 등	채소, 양계, 양돈 등	과수단지, 채소 등	콩, 옥수수, 참깨 등

[참고 2]

중국 및 러시아 농업 개발현황

구분 \ 한국진출 업체	대 륙 개 발	대 륙 개 발	만 강 개 발
사 업 명	○ 삼강평원 두홍농 업종합개발	○ 중국흑룡강성 가목사시 농업개발	○ 연길의란 목축업 개발
사 업 지 역	○ 흑룡강성 부금시 두홍농업 개발지구	○ 흑룡강성 가목사시	○ 연길시
사 업 추 진 경 위	○ 92년도 삼강평원 농업개발 총공사와 합작계약 체결로 “중·한합작 흑룡강 삼강평원 농업개발 유한공사” 설립	○ 95년도 흑룡강성 국영농장과 의향 서 체결이후 진척 사항 없음 - 중국측 제시조 건 불합리(토지 등 여건불리)	○ 92년도 사업허가 (이봉총리 특별비 준) - '93.3:연길축산 업 개발공사와 합작계약 체결
사 업 계 획	○ 농장개발('92- '97) - 면적:38천ha (1억1,400만평) ○ 농작물 생산계획 - '92~2061 (70년간) - 콩:19,200톤, 밀:50,000톤 (2,000년 기준)	○ 초지 및 농지개발 (2005년까지) ○ 옥수수 등 사료곡 물 재배 및 목축 사업 - 곡물 100만톤 - 비육우 50만두	○ 가축(소, 닭, 돼지) 사육 - 관련 육가공품 및 라면 생산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 총사업비 :28,500천불수준 ○ 자본금:7,100천불 수준(한국측 50% 기납입) ※ 추가개발비 지연	○ 총사업비: 62,500천불 ○ 자본금: 37,500천불 (한국측 75%)	○ 총사업비: 250,000천불 - 농목축분야: 110,000천불 - 기타경영공업단 지:140,000천불 ※ 자본금 및 사업비 조달 지연
사 업 추 진 상 황 ('95년말)	○ 콩2,222톤(101ha), 밀1,300톤(1,500ha) 을 생산 현지판매 (수출권 확보 50%)	○ 포기상태	○ '93.7:기공식 이 후 진척없음

구분 \ 한국진출 업체	고 합 물 산	고 합 물 산
사 업 명	○ 연해주농업합작	○ 아무르주농업합작
사 업 지 역	○ 연해주 우수리스크군 순야센농장	○ 아무르주 뿌리볼노예농장
사업추진경위	○ '92:고합과 연해주 정부 간의 기본합의 ○ '95.7:연해주농업 합작회 사설립(프림코)	○ '94:고합과 아무르주 정 부간의 기본합의 ○ '95.3:아무르주 농업합작 회사 설립(코러스)
사 업 계 획	○ 기본합의 대상농지: 43천ha(1억3천만원) ○ 사업확대 5개년계획추진 - '95년~99년 - 소사육병행:7,000두 ○ 농축산물 가공사업추가 - '97년부터 : 콩가공 - '99년부터 : 축산물	○ 기본합의 대상농장: 50천ha ○ 사업확대5개년계획 - '95~'99 - 소사육병행:8,000두 ○ 농축산물 가공사업추가 - '99년부터 축산물
소요자금조달	○ 합작투자액(12,000천불) - 러측:기존농장 현물투 자(50%) - 고합측:현금(50%)	○ 합작투자액:(13,000천불) - 러측:기존농장 현물투자(50%) - 고합측:현금(50%)
사업추진상황	○ '95년 1단계 추진 - 경작면적 : 2,000ha - 콩생산 : 2,000톤	○ '95년 1단계로 경작면 적:6,600ha에 콩 1,500 톤, 밀 1,000톤 등을 생 산계획했으나 작황이 좋 지 않았음.

토론내용

빈

면

토 론 내 용

진행자 : 지금부터 『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에 관한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상우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 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여러분께서 왕림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국제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여건 또한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발표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 보시고 진지한 토론을 하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아무쪼록 성과있게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진행자 : 지금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상우 원장님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상우 원장) : 제가 연구원에 부임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의 국제곡물 사정과 관련하여 진작에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본 토론회의 의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1주제는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 제2주제는 사료곡물의 국제수급 전망 및 대책, 그리고 제3주제는 최근의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 등 입니다. 먼저 제1주제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제발표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고재모 박사님, 토론자로는 농협대학교의 고영곤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양승룡 교수님, 제일제당의 손영록 곡물팀장님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발표자께서는 20분 정도의 시간내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께서는 한 분이 7분 이내에 토론해 주시도록 하시고, 청중석에서 두분 정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별 토의가 끝나면 주제발표에 대해 마지막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재모 박사님의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제1주제 발 표)

발표자 : 고 재 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자 : 발표자께서 발표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발표자의 논지를 보면 우선 수급, 재고, 가격, 교역을 분석하고 중장기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발표자는 개도국 수입국인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향후 국제곡물 수급이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계에 계신 양승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승 룡(고려대학교 교수) : 저는 발표자께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 문제점을 덧붙이고 의견을 달리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필자의 전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께서는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에 따라 대처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을 다 소개해주셨으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막연한 기대에 의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산기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은 추세로 진행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의한 낙관적인 전망은 대체로 수출국들이 하는 전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전망은 대체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요인에 의해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수입국들이 하고 있는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두 전망에 대해 구별한 것을 동의합니다. 수출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계식량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국들이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또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본인의 전망을 제시해 주시지 않은 점이 아쉬워서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 역시 앞으로의 국제수급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70~80년대 전체 사회경제와 앞으로 다가올 전체 사회경제는 그 모양이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1970~80년대는 두차례 오일쇼크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경제성장이 전세계적으로 골고루 파급되는 양상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왔던 수요의 증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생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처럼 저도 비관적 전망에 동의합니다. 경작면적이 증가될 가능성은 적고 기술의 정체로 인해서 단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세계 식량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기후변동에 의한 생산의 변동인데 앞으로 기후변동에 의한 생산의 변동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5월 24일자 CBOT의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내년도의 국제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한 '97년도 7월의 선물가격을 보았습니다. 대두와 쌀은 지금보다도 훨씬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두는 4~5년 동안 보아 왔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는 현재의 최고 기록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지난 3~4년간 보아 왔던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단기 모두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량수급을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문제라고 하면 식량안보를 언급하고, 식량안보를 언급할 때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문제는 물리적으로 식량확보가 불가능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격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하나는 가격의 전반적인 수준, 즉 평균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20~30년 동안 보아 왔던 세계 곡물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평균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 우리가 더욱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인데, 가격의 변동 폭이 커짐으로써 가격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국제곡물 가격의 파동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국제시장이 협소하고 과점화되어 있으며, 둘째 금수조치의 가능

성이 있고, 셋째 곡물메이저들이 많은 역할을 하며, 넷째 수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첫번째와 네번째 요인에 대해 동의합니다. 국제시장이 협소하고 몇몇 소수의 생산자들에 의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며, 또한 수급이 비탄력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수조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필자께서 제시해 주신 예를 보면 베트남과 중국이 수출금지를 한 예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단지 수출금지의 가능성이라기 보다는 생산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를 대체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현상을 나타내 주는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곡물메이저들의 역할을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부분 곡물메이저들의 역할이 과장되거나 과대평가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곡물가격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에서 시장지배력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곡물메이저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곡물가격이 수십년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곡물메이저들이 단기적으로 임의적인 독점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전세계 곡물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 다음은 제일제당의 손영록 곡물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록(제일제당 곡물팀장) : 주제발표 내용은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주제방향은 옳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가격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중국을 포함한 대형 수요국가의 수요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공급도 대형 수출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국가들의 작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각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 대두, 소맥 등 세 품목이 조금씩 다른 가격변동 요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옥수수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작황이 다소 좋지 않았습디만, 공급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60~70%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공급보다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3/'94년 중 미국의 곡물수출량은 3천5백만 톤 이었습니다. '94/'95 , '95/'96 곡물년도에는 5천5백만톤이 수출되어 거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미국의 곡물수확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또 미국의 곡물수출량도 두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4년도까지 연간 1,200만톤씩 수출하다가 1994년 말부터는 수출을 중단하고 오히려 수입국으로 전환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두와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작년 평균 옥수수가격이 150달러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235달러로서 거의 6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수요는 줄지 않았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60%~70%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도 줄지를 않습니다. 결국 가격상승이 수요증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국가들 중 대표적으로 중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뿐만이 아닙니다. 2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인 붐을 타고 배합사료사업이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도 가세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곡물수요, 특히 사료곡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공급상황이 어떻느냐를 불문하고 사료곡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번째 밀의 경우를 보면 다른 곡물에 비해서 가격과 소득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편입니다. 밀은 호주가 세번째의 수출국이었고, 연간 1,800만톤을 생산했는데, 1994년에는 생산량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캐나다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또한 지난해 작황이 안 좋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맥이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작황이 부진했던 경우는 유래가 없었습니다. 즉, 주요 수출국가인 호주, 캐나다, 미국의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밀은 수요보다 공급에 의해서 더욱 큰 영향을 받았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밀가격은 작년 평균 톤당 213달러에서 285달러로 72달러나 올랐습니다. 밀은 육류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급량의 감소에 비한다면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예상됩니다.

대두는 소맥과 옥수수 등 사료곡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감으로써 동반상승한 측면이 있고, 대두제품인 대두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는 하였으나 다른 품목보다는 가격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톤당 약 70달러 정도 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3대 곡물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맥은 주로 겨울밀이 생산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수확기가 보통 7월입니다. 그렇지만 대두와 옥수수는 수확기가 주로 10월 이후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곡물을 취급했지만 곡물가격이 동시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맥가격이 오를 때는 대두나 옥수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이처럼 전품목이 동반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아닌가 예상합니다.

전체적인 향후 전망을 보면 결국은 수요로 인한 가격상승의 유발효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가의 곡물수급은 별 어려움이 없습디만 인구가 많은 저개발국가는 계속 식량부족에 처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남아프리카 등이 우려의 대상국들 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적은 것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육류의 구매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육류소비량이 늘어나면 곡물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들 국가의 수요증가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늘어나서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수

요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저개발국가들의 산업화로 식부면적이 준다는가 농지가 다른 산업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연간 3,000만 정보의 농지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급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WTO체제가 발족되면서 각국은 경쟁력있는 부분에 생산을 집중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보조금을 주어서 생산을 장려하고, 나중에는 과일 생산이 되어 수출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생산을 늘려서 수출을 장려하는 상황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초과공급 상태에서 억지로 생산한 잉여분, 경쟁력이 없으면서 생산을 장려한 그런 국가들은 결국 생산을 줄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상과 같은 구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지면적의 감소입니다.

끝으로 가격의 고저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금수조치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금수조치는 곡물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980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금수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곡물금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미국이 주장해 왔던 WTO 체제하에서의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이 줄면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미국내에서도 돈 없는 사람들은 구매량을 줄여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난한 국가, 돈 없는 나라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적게 소비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농협대학교의 고영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 영 곤(농협대학교 교수) : 전반적으로 발표자나 토론자 모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세계식량 수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비판적이고 위기 쪽으로만 흘러가면 위축을 받기가 쉽고 정신적으로도 편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밝은 쪽의 전망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 세계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요란했습니다. 인류성장의 한계, 인류의 위기, 로마클럽 발표 등 인류가 더 이상 지구상에서 번영을 누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1978년경부터 세계곡물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주 안정적인 곡물수급 동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 무렵만해도 수출국들은 수출을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옥수수과 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쌀가격도 심상치 않아 다시 비판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발표자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이야 어떻든 우리는 비판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저도 전적인 공감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계 곡물수급이 낙관적이니까 국내에서 안일하게 대비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말아주길 바라면서 14페이지의 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곡물 가격의 변동상황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약 여섯 차례에 걸친 가격폭등 현상이 있었고, 그런 폭등현상이 나타나면 3~4년, 혹은 5~6년 정도 지속이 되었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타나는 곡물가격 폭등현상도 금년이나 내년에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고량과 생산량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이상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이러한 가격 폭등·폭락 현상이 과연 장기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났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불안, 예를 들면 기상이변이라든가 특정 대형수출국이나 대형수입국인 구소련, 중국, 미국의 생산이나 수요의 정책변화 때문에 나타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적어도 과거의 가격폭등 현상들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지 인구증가라든가 소득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타나는 가격폭등 현상이나 식량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문제는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보다 유익한 논문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사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림 4의 경우는 기준년도를 1977년~1979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세계 곡물가격이 비교적 낮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작성했기 때문에 혹시 그래프의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이 실제보다 불안정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과거보다 더 자주 일어날 것인가, 곡물메이저들이나 수출국들이 더 횡포를 많이 부리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이용면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투입재 사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공급증가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이 세계 곡물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무역기구 출범은 전반적으로 곡물가격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가격의 불안정성도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왜 가격이 불안정해지는가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할 때에는 정부 보유의 재고물량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면 이월재고는 결국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관리될 것이고, 그런 목적이라면 전반적으로 이월재고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생산구조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쪽으로 생산이 집중되어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서 가격폭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WTO는 세계 식량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경우 이 문제에 앞서 세계 곡물수

급과 관련된 자료 중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통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농무성의 자료를 보면 중국통계는 30% ~ 40% 정도의 생산량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기존의 중국 통계만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세계 식량수급을 전망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하지 않은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나라가 농산물무역과 관련하여 활발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곡물가격 폭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무역의 자유화를 통한 세계식량 수급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협상에 활용한다고 하면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도 지나치게 위기의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 나가고, 언젠가 우리도 자체적으로 세계 곡물수급과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회자 : 토론자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토론을 줄여야 되는 사회자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한대로 청중석에서 한 두 분정도 발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혹시 보태실 의견 있으시면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안 계시면 지금 토론자들 중 먼저 양 교수님께서 발표자의 견해가 비판론인지, 낙관론인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손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공급측면의 불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고 교수님께서 반드시 국제곡물의 수급동향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며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표자께서

꼭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발표자 보충설명 : 필자의 독자적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발표자료를 준비하면서 재고, 가격, 생산, 소비 등에 대해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 대체 1%의 생산과 재고변화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보고자 했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모든 것을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해 놓은 자료를 정리해서 소개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원고가 다시 재정리되어 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능하다면 보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문제에 대해서 저는 네 항목을 지적 했는데, 두 항목은 동의를 하고 나머지 두 항목은 동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동의하는 두 항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금수조치가 생산과 소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내는 것과 금수조치를 발표한다는 것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와 취할 때 그 영향은 큰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곡물메이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메이저의 역할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동안 곡물메이저들의 역할이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것은 수요자들의 입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생산쪽에서는 EU와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판매선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곡물메이저들도 판매선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족상태가 발생한다면 최소한 대부분 곡물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들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손영록 팀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적은 곡

중별로 각기 다른 가격결정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동의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물리적으로 구매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발표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대책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서 금수라는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영곤 교수님은 주로 WTO가 성립한 이후 곡물시장의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변화들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의 많은 견해들을 참고하여 좀 더 보완된 원고가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토론자들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제2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휴 식)

사회자 : 제2주제는 사료곡물의 국제수급 전망 및 대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축협중앙회의 이병열 사료사업부장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박종문 카길트레이딩 상무님, 김진의 한국사료협회 부회장님, 농경연의 유철호 박사님입니다.

(제2주제 발 표)

발표자 : 이 병 열(축협중앙회 사료사업부장)

사회자 : 발표자께서는 사료곡물의 수급에 특히 중요한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수급불안이 나타나니까 곡물가격의 강세

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했습니다. 사료업계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카길트레이딩의 박종문 상무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종 문(카길트레이딩 상무) : 발표자께서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분석도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수급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적어도 2~3년간은 재고여유가 없고, 값도 상당히 고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230달러~240달러 수준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옛날처럼 120달러~130달러 시대로 회귀하는 데는 적어도 3~4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상이변으로 공급의 변동이 전보다 더 심할 것 같고, 또 중국이나 동남아의 수요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의 감소 가능성보다는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상호전이 되어 공급이 늘더라도 소비를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경작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통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보다도 오히려 감소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동안의 수요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잡곡을 활용해서 부원료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구매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의 경우 구매기관에 따라서 구매가격의 진폭이 매우 심합니다.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보면 급격히 시세가 오르는 과정에서 몇몇 기관이나 그룹간 구매가격의 차이가 매우 큰 폭을 보입니다. 즉, 기상변화 등 가격상승 요인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구매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했는데, 또 어떤 구매자는 반응이 늦어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또 최근까지는 중국산 옥수수를 수입할 때 값을 조금 비싸게 하면 안 샀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제일 큰 구매국이고 가까우니까

한국이 안 사면 저절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구매습관에 익숙하다 보니 미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시카고 선물시장은 불행히도 한 나라가 구매를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한국 구매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충동구매 내지는 비교구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170달러에 샀는데 내가 왜 175달러에 사야 되느냐, 조금만 값이 올라가도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안 삽니다. 그러다 보면 더 오르니까 구매시기를 놓쳐서 180달러에 살 것을 200달러 이상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이성적으로 구매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구매기관은 오른다는 전제하에 구매행동을 취하고, 어떤 구매기관은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째, 구매방법도 거의가 확정가격으로 사고 일부만이 선물시장을 활용합니다. 값이 오를 때는 동시에 구매하니까 어떤 회사가 오른다고 판단을 해서 빨리 사고 싶어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우선 선물로 사서 나중에 실구매시 다시 선물을 팔고 자기가 목표한 확정 가격으로 사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같은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한 기간동안 값이 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더라도 계속 일정가격에 고정될 수는 없으므로 등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이 때 선물을 활용하여 목표한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각 회사들이 전문인력을 키우고,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선물구매를 실시하여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때는 불행히도 전세계 곡물 값이 내릴 때 시작했기 때문에 사서 이익을 본 것보다는 손해 본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값이 내릴 경우 반대로 파는 것도 가능하므로 구매방법상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988년도와 같이 처음에는 날씨가 나빠서 가격이 오르다가 연말이 되니까 대폭락을 한 경우의 대척입니다. 그러한 현상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너무 심한 투기성 확보보다는 안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해외농업투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기업이 일반 농업, 특히 조곡생산을 위해 해외투자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땅투기의 위험도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박종문 상무님께서서는 구매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한국 사료협회의 김진의 부회장님께서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한국사료협회 부회장) : 먼저 발표자의 말씀 중에 조금 부언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료곡물의 가격 약세요인 중에 중국산 옥수수의 수출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전 홍콩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미 중국산 옥수수 150만톤 정도가 한국에도 팔렸고, 일본에 팔린 것은 90%가 선적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세계 곡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사료곡물의 면적확대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의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급증가라는 차원에서 낙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중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수출이 재개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의 수입에 의한 국제시세 상승은 완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옥수수만 주요 사료용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곡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호주에서는 미국의 옥수수에 상대한다는 의미에서 특종의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종 옥수수는 원래 보리에 비해서 에너지(열량)가 떨어지는데, 에너지를 높이

는 육종기술 성공으로 시험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이런 결과들이 곡물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MA나 쿼타방식으로 사료원료로 쓰는 옥수수 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도 구매과정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선물시장과 국제시장을 읽는 경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종합상사 또는 선물을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이미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여 훈련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수요 업계에서도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선물을 취급하다가 몇년 동안 손해만 보고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이제 미국시장이 주된 공급시장이 되면 다시 선물을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를 많이 하는 축협에서는 작년과 금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소문이 나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선물취급을 하면 위험부담이 상당히 큼니다.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잠재적인 손실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쿼타문제가 없어지면 종합상사에서 이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만에서 하고 있는 재고판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제시세가 형성되면 특정시장에 구매받지 않고 원료를 사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료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국내의 대책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료업계는 축발기금중에서 금년도에 500억원을 융자받아 곡물구매시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축발기금으로 가축사육가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담보문제 때문에 쉽게 받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료업체는 외상매출금으로 인해 시설현대화에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원을 강화해 주시고, 사료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몇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정기금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그 혜택을 꽤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기준가격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재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영세율에 대해 영세율의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농가가 앞으로 축산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지 않습니다. 규모의 경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측면에서 볼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만약 축산에 대한 진흥을 정책적으로 고려한다면 오히려 축산 전업농가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배려와 세수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축산업의 특성상 영세율 적용범위가 현재와는 반대가 되어야 효과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세가 각국간의 경쟁력 비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배려로 금년 6월부터는 여러 품목이 영세율 혜택을 받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원료의 수입관세에도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료의 관세를 제로화 시키는데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다음에는 연구분야에 종사하시는 농경연의 유철호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철 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발표자께서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38페이지의 자료 중 미국의 옥수수 재고수준이 3.7%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최근 미국 농무성의 관측자료를 근거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사료곡물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관계 자료도 잘 정리하셨고, 대책까지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톤당 120달러를 유지하는 세상은 지났고, 현재의

어려운 수급사정이 적어도 3~4년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 이후 과거 15년간의 자료를 살펴 보면 옥수수 가격이 크게 다섯 번 정도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1981년도를 기점으로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올랐습니다. 1984년까지 올랐다가 그 후 1988년까지 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을 정리해 보면 한번 오르면 지속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최근의 가격상승은 1994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1년 반의 오름세가 지속되었는데 과거 15년 동안의 어느 주기에 비해서도 가격변동폭이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면 수출국의 경작자들은 재배면적을 늘릴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금년도 옥수수 경작면적이 1000만ha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금년이나 내년쯤에는 1984~1988년 동안에 경험하였던 것처럼 장기 하향곡면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대책분야를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축가들이 어렵고, 배합사료공장이 어렵고,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무세화 해야 합니다. 대상도 부업규모를 포함한 양축가 전체규모로 확대해서 사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료가격, 원료가격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업계에서 선물제도 이용 등 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결과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료곡물이 오를 때를 대비하여 선물거래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무님께서도 오를 때 선물거래에 참여하여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지적입니다. 축협이 선물팀이 칭찬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니깐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물비율을 높여 가느냐 하는 것은 작황, 재고수준, 수출국과 수요국의 동태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전문인력도 육성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별도의 분석팀도 운

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배합사료 가격이 더 올라가면 사료가격의 중압에 못 이겨 탈락하는 양축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합사료 비중이 높은 양계, 양돈의 경우 타격이 심할 것입니다. 또 국내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현재보다도 사료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회자 : 세 분 토론자께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측에서 국제농업국장과 축산국장이 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축산기금을 더 지원하는 문제, 안정기준가격제도를 재고하는 문제, 영세율을 전업축산에 적용하는 문제, 무관세화 문제 등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3주제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3주제는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장으로 계시는 최용규 국장님께서 최근의 국제곡물수급 동향과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님, 농협중앙회 이실관 해외협력실장님, 농어촌진흥공사 해외개척부 박영현 부장님이십니다. 먼저 최용규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3주제 발 표)

발표자 : 최 용 규(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장)

사회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부를 대표하여 최국장님께서 공급으로 요인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곡물공급 기반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의 한두봉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봉(고려대학교 교수) : 먼저 최용규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토론하겠습니다. 최국장님께서 국제곡물 수급전망과 대책 부분은 간단한 설명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농업 개발투자 같은 얘기도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발표자료를 읽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9페이지의 국제수급 전망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996년 미국농업법이 통과됨으로써 경작의 자율성이 제고되어 과거 경지면적 감축계획에 의해 제한되었던 면적이 풀리고,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식량수급 문제가 낙관적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최근 미국 미조리대학교에 있는 식품 및 농업정책연구소의 발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연구소에서 농업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미의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약 1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연구소에서 5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농민들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전망은 농업법 때문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국제곡물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국농가들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경작자율성의 제고로 인하여 과거 휴경지로 되어 있던 1,000만~1,500만 에이커 정도의 면적이 2004년까지 경작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면적들은 대부분 옥수수와 콩의 재배면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의 전망결과에 의하면 곡물과 축산물가격은 국제 수입수요의 증가 때문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관심사를 끌고 있는 쌀은 미국의 농업법 개정으로 쌀 농가들의 수익성이 나빠져서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쌀의 수출량은 미국내에서의 쌀 수요증가와 재배면적의 감축으로 2004년에는

1996년도 대비 56%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조리대학교의 식품 및 농업정책연구소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쌀의 장기적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관적인 세계 곡물수급 상황을 좀더 냉철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쌀의 국내식량 공급기반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농업부문의 차원을 떠나서 경제담당자, 경제철학의 일환으로서 쌀의 공급기반 확보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술혁신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농진청에서도 슈퍼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미작연구기구에서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슈퍼쌀이 비료와 농약의 투입을 늘려야 하고 또 기상이 불안정하면 실용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농학계통 연구의 핵심입니다. 결국 기술혁신 문제도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책과 관련하여 국제수급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식량공급을 위한 잠재생산 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인 쌀에 대한 대책 뿐만이 아니라 사료가격이 계속 급등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축산업의 생산기반도 어떻게 잘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곡물의 식량자급도가 27.7%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열량기준으로는 60%가 넘습니다. 만약 축산분야가 무너질 경우 열량기준으로 본 식량자급도는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대책으로서 민간비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민간비축에 앞서서 공공비축의 문제를 좀 더 재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선진국의 농업정책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재고물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곡물재고는 시장움직임에 따라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공공비축 문제를 정확히 정립하고 그에 따른 보완사항으로서 민간비축 문제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

니다.

셋째는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경제외교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식량외교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세계경제 10위권의 국가로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능력도 있으므로 장기적·안정적 식량수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농업투자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해외농업투자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민간주도형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지원방향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농업투자는 현재 국제경제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문제입니다. 현재 다국적 기업의 생산량은 세계 전체 산업생산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교역량이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한 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외농업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이 어떠한 동기에서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철저한 이윤추구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운송비를 절감한다든가, 수입국의 관세장벽을 회피한다든가,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우월한 자본·기술·경영노하우를 수출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즉, 우리는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생각할 때, 왜 현대가 캐나다나 미국에 생산라인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농업투자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이윤추구 동기에서 시작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적만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또 과거 해외개발투자가 실패한 경험도 있으므로 정책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투자도 회사의 경영과 이윤추구 동기에서와 같이 철저히 자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세제문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것은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의 다국적 기업, 그리고 우리의 종합상사들이 해외에서 다국적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적절한 시기에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식량, 또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이제는 성장단계에서 소홀히 되었던 농업·농민계층이 형평의 경제철학을 가지고 제몫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한두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의 이실관 해외협력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 관(농협중앙회 해외협력실장) : 먼저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식량안보와 통상문제를 발표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으므로 이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국제곡물가격 그래프를 보면 과잉·과소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WTO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많은 수입국가들이 이 문제가 UR의 영향과 관계가 있다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통상문제에 직면하여 수입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계기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UR의 영향 때문에 세계곡물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FAO에서 나온 공식문서에도 UR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UR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수출중심의 농

업으로 구조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각국의 식량안보는 더욱 더 악화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침 금년 11월에 세계 식량정상회의가 열리므로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통상문제에서 우리가 UR 기간동안 힘겨워 했던 문제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 중심의 WTO 제네바라운드 분위기가 FAO에 의해 세계식량안보 주제로 로마의 테이블로 옮겨가면서 식량안보 중심의 의견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부가 통상문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위치를 잡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통상무대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문제와 자국에서 자급을 위한 농산물 생산은 차별화해서 부각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안보회의를 통해 그 나라가 국내에서 자급하기 위한 농산물의 생산은 각종 보조금과 시장보호 등이 허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산물무역 규범을 만드는 계기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나 중국 같이 큰 나라일수록 식량안보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농업담당 국무위원과 APEC대사 등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의 농산물 자유무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식량이 부족했을 때 호주가 자유무역을 이야기하지만 호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량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잘 협의하면 통상문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국이 앞으로 곡물생산과 관련하여 국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국의 한 사료공장을 방문했는데 6월말까지 대두박 생산예약이 끝났습니다. 사료구매자들이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흑룡강성의 경우 대두를 다른 省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식량부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과거와 같이 쉽게 중국으로부터 사료곡물을 조달하던 시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외 농업개발투자와 관련하여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UR협정서에서 허용한 CMA 라든가 MMA 물량내에 해외 농업개발분을 포함했을 때 UR협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와 그 문제를 피해 나갈 방법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확실하게 해 주시면 민간기업이 해외개발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농민들 중에서는 중국에 가서 농장을 경영해 보려는 농민도 있습니다. 이 때도 이들의 생산물을 정부가 CMA 또는 MMA 물량에 포함시켜 수입한다면 UR협정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농장개발은 주로 농장에서 사료곡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자본으로 중국에 대두유 공장을 설립하여 대두유는 중국 국내용으로 쓰고 대두박은 장기간 국내에 반입하는 조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고령지채소 생산도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주도 해외농업개발 방향을 말씀한 한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정부가 어떤 분야를, 어떤 차원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를 분명하게 예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개발이 국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내 농민들과 마찰이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국내 농업인들에 대한 영향은 농협에 계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공사의 박영헌 해외개척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영 헌(농어촌진흥공사 해외개척부장) :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사와 관계되는 해외농업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요지의 추진방향은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하고, 또 정부는 간접지원을 하며, 대상면적은 북방권, 동남아권, 남미권, 호주권의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민간기업이 기술지원을 요청했을 때 진흥공사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또 KOICA나 ADCF의 자금지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해외농업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방법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대해 저는 먼저 말씀하신 한 교수님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간접지원을 한다는데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농업개발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며 자본회수 기간도 길고,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기업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간주도로 추진할 경우 얼마나 많은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대상지구에 대해서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개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발도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종목표는 민간주도의 해외농업개발이 되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과감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도 해외농업개발이 무엇인지, 개발을 하려는 국가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와 농업진흥공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도 있고, 요즘에는 민간기업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참여목표가 다릅니다. 따라서 농업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하여 민간기업에 널리 알리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해외농업 개발에 관여할 때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에 대해 실무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구를 북방권, 동남아

권, 남미권, 호주권으로 나누었지만 어느 지역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기본답사를 실시하여 우선 개발가능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발가능지역이 있다면 해당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발가능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개발가능지의 단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지역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민간기업에 홍보하고, 민간기업은 흥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전권역별 조사자료를 민간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목표는 민간주도의 해외개발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보면 시작부터 민간주도 개발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민간주도 개발이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정부가 권역별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다음 이곳에 투자를 해도 실패하지 않을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별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민간기업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개발지구를 선정하면 정부는 기본조사를 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단 구성문제는 이렇습니다. 농진공은 1967년부터 해외 기술용역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농진공을 중심으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요청이 있다면 자문과 협조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한두봉 교수님께서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봉(고려대학교 교수) : 앞에서 시간제약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농업투자와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의 예를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반입을 위한 해외농업투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을 미국, 캐나다에 만든 것이 국내로 자동차를 수입하

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외농업개발 투자는 참여하는 기업의 이윤여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특정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참여했을 때 우를 범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토론자 여러분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려대학교 한 교수님이나 농협의 이실장님께서 식량안보 문제, 쌀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는 쌀산업 발전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어 네분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쌀산업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5월 30일 본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3일에는 광주에서, 6월 5일에는 대구에서, 6월 7일에는 대전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방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 번의 서울토론회와 세 번의 지방토론회를 통해서 쌀의 생산, 유통, 수매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토론자께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보충설명 : 한두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급관계는 앞서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생략을 했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낙관과 비관이 교차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할 때는 비관론에다 초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실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FAO에 가보면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되었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에 대해 국내의 자급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드러내 놓고 우리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저희들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 단계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비관론이 우세하므로 저도 비관론 쪽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의 식량공급, 특히 쌀문제를 강조하셨는데 오늘의 토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내의 식량공급 능력에 대한 문제는 대외통상에서 항상 제1순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의 식량공급이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비축문제, 특히 쌀을 포함한 공공비축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의 논의는 사료곡물 중심이므로 가급적으로 쌀문제는 제외했습니다. 쌀문제는 다루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고, 추후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교수님께서 다국적기업을 예로 들면서 해외농업투자도 그냥 기업에 맡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한 교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해외개발도 가급적이면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동기에 맡기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개발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시장접근 물량, 저울관세로 도입하는 것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CMA라고 해서 과거 1986~88년간의 평균량을 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MMA라고 해서 전년도에 도입하지 않았던 3%의 물량을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MMA의 경우에는 해외개발을 통한 물량도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바인딩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특정기업이 가지고 오는 물량을 MMA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CMA 물량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CMA 물량내에 실수요업체가 도입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축협이나 사료업체 등 실수요업체가 도입할 때는 자기가 도입할 수 있는 양의 한도 내에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기업이 도입할 때는 국제가격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비실수요자의 도입분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여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상협상의 호기로 이용하라는 것은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NGO로 여러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팀에 협조를 해 주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벌써 작년부터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농진공 박영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장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각계의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관리들이 너무 나서면 상품화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상품화할 수 있겠다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그것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상품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이것으로 제3주제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간 10분간에 걸쳐서 우리가 의도했던 세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의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중장기적 전망,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업계에서 할 일,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중석에서 세 주제를 다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청 중 토 론)

청중 1. 김 웅 채(농림수산부 농업공무원교육원장) : 저는 WTO 체제 하에서의 국제곡물 시장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WTO 체제하에서 국제곡물 수급은 비관적이라는 입장입니다. WTO에서 추구하는 완전 시장개방이라는 것은 국가간의 무역장벽 없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비교우위에 의해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그야말로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완전 자유경쟁 시장, 완전 국제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완전 자유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특정 수요자와 특정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전체를 좌우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가격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주제 발표에서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곡물은 전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소수의 국가인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이 수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곡물수입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곡물 시장 구조를 보면 수출은 독점 내지 과점형태이고, 수입수요는 다수자가 완전경쟁 시장에서 정의하는 다수의 수요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WTO 체제하에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그야말로 완전 시장 개방이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는 수출과점을 하는 일부 곡물수출국에 의해서 전 세계의 식량생산량도 좌우되고 수입 또한 좌우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1주제 발표 때 양승룡 교수님께서 앞으로 곡물메이저의 가격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WTO가 출범하기 이전 각국이 보호무역, 국내 농업생산을 보호하는 체제하에서는 각 나라가 최소한도 필요로 하는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량이 많고 수출을 하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

요에 맞추어서 생산을 했습니다. 때로는 과잉상태가 되어서 가격에 대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제 곡물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그야말로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때 수출을 독점하는 미국의 곡물메이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세계 식량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에 따라 초과이익을 획득하는 그런 사태가 오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방금 최용규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해외농업 개발투자는 국내생산 대체 외에도 해외부분에서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2. 주 우 일(농수축산신문 논설위원) :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국제 곡물수급인데 주곡에 대해서 부족한 것과 나중에 수입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만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먼 장래에도 과연 중국이 국제사료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화만 잘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만 하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료곡물 이외 축산물 자체의 수입을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WTO체제가 완전히 정착하면 축산물 자체에도 MMA 차원이 아니고 가격이 싸면 마음대로 수입하여 파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 때는 사료곡물의 수출입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 축산물 가격변동에 따라서 곡물수급이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는 오늘 토론회에서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제외시키고도 토론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표자께서 해외투자정책은 순수하게 우리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초에서 보면 해외에서 경작하여 수입해 온 사료곡물로 국내에서 축산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

적인 방법인지, 합리적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세계시장 동향은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쇠고기, 닭고기 등을 사육하여 들여 오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 의지대로 해외에서 사료곡물을 생산하여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의문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미국정부 농정당국에서 사료곡물 가격과 축산물가격을 조작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사료곡물 가격을 축산물가격과 연계해서 조작을 한다면 우리가 곡물수급 문제만 계속 논의 해야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위에서 언급한 의문을 제기하며, 농정당 국에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3. 김 치 영(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차장) : 그 동안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주로 수급상의 요인, 가격상승 요인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요인들을 보면 실제로 수급상 요인 이외에 우리가 증권시장이나 국제곡물 선물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과열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가격이 두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실제 수급상의 요인보다도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분석이 있었 으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격상승 추세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가 하는 전망도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 다. 실제로 최근 시카고 곡물시장에는 과거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시장 에 복귀하여 '사자주문' 만 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USDA 크림레포트라든가 재고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상 유례없는 최고가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가격상승 이 실제로 과잉표시가격은 아닌지 하는 분석이 있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

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사료업계는 공급물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이는 축산물 생산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관세문제, 영세율 문제, 축산자금 지원문제 등 모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곡물가격이 10%내에서 상승할 때는 이 같은 조치들이 어느 정도 완충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또 사육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대비 50~60%씩 가격이 오르는 상황하에서 과연 이 같은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치들을 모두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10%내외의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전 축협 의 조사부장님께서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1/4분기에는 피드레이션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료곡물의 사용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미국에서는 도살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료원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축산을 포기하고 도축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이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추세하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쇠고기나 축산물을 사 먹어야 되는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4. 이 병 화(국제농업개발원 원장)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농장개발 문제인데 저도 어제 저녁 야따마우가 농장에 관한 T.V 방영을 보고 일말의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해외농장개발은 러시아 고탕농장, 중국 대륙개발의 농장, 이 외에 발표되지 않은 브라질의 십자성 농장, 아르

헨티나의 농장 등이 있습니다. 곡물분야 외에 새우 양식장, 순대용 오징어 양식장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발표자 뿐만 아니라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신규 해외개발에 대해 민간인이 주도했건, 정부가 주도했건 간에 전문가들이 현지에 나가서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경우 왜 운영이 어려운가 하면 중남미는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단이 갈 때마다 우기였던 관계로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기에 갔기 때문에 소금밭인데도 풀이 잘 자라고 있었고, 또 갈 때마다 이웃에 소를 방목하는 전문적인 토지 사기꾼한테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규 국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 아르헨티나의 농장구입 금액도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칠레의 떼노농장은 국제농업개발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3년째 정부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도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떼노농장은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KOICA에서 관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무부와 KOICA에서 제시하는 가격도 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구입 당시의 가격이 30만 달러였는데, 현 시세는 20만 달러도 안됩니다. 해외개발 투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조사요원들이 끌고루 현지에 파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러시아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회자 :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자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가 토 론)

양 승 룡(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사료협회의 김차장님께서 오픈인썬레

스터라는 인포메이션을 잘 읽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픈인슈레스터는 선물시장에서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최근 오픈인슈레스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오픈인슈레스터가 선물가격 수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확실성, 가격의 위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3시간 30분에 걸쳐서 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을 모으는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업계, 연구자, 언론,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생각들을 합쳐서 훌륭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결과는 앞으로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에다 여러분들의 뜻을 더 추가하여 보완한다면 계속해서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행자 : 이것으로 『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일정 및 주제별 토론참가자 명단

1. 일 시 : 1996. 5. 27(월) 14:00 - 17:30
2. 장 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당
3. 주 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후 원 :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5. 토론참가자 :
 - 회의주재 : 박상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제1주제 :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
 - 발표자 : 고재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고영곤(농협대학교 교수)
양승룡(고려대학교 교수)
손영록(제일제당 곡물팀장)
 - 제2주제 : 사료곡물의 국제수급 전망 및 대책
 - 발표자 : 이병열(축협중앙회 사료사업부장)
 - 토론자 : 유철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종문(카길트레이딩 상무)
김진희(한국사료협회 부회장)
 - 제3주제 : 최근의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
 - 발표자 : 최용규(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장)
 - 토론자 : 이실관(농협중앙회 해외협력실장)
박영현(농어촌진흥공사 해외개척부장)
한두봉(고려대학교 교수)

연구자료 D120 토론회 결과보고

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

찍은날 1996. 7. 펴낸날 1996. 7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